

이달의 포커스 뉴스



2021년 1분기 베트남 전력산업 개황

15P

노동 관련 베트남 주요현안

- 코로나 19와 노동법 규정, 대응방안,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노동허가 이슈

38P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 · 월간 뉴스 · 프로젝트 동향 · 산업	2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한국관광공사	20
■ <기업탐방> 캠시스비나	22
■ <금융> 외국환거래법	27
■ <노무> 베트남 현지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	30
■ <법률>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 수행 절차	32
■ <창업>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 유의사항	35
■ <현안> 노동 관련 베트남 주요현안	38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끼엔장성>	46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54
■ <웹툰> 정부의 통상정책은 기업의 창과 방패	59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61





베트남의 신임 지도부 선출과 기대되는 국정운영 방향

- 사회주의 체제유지 만큼이나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신임 지도부
- 당시기장(응우옌 푸 쫑, 3선)과 국가주석(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 승격) 중심으로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

13대 공산당 대회 주요 지도부 선출 결과

베트남의 정치는 일당제 사회주의 국가로 정의된다. 하나의 당이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을 모두 아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실제 베트남 헌법상에서도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 세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국가, 국회, 정부의 활동 전체를 지도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

2016 ~ 2021 내각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키워드는 바로 부패와의 전쟁이다. 중앙에서 지방 그리고 현직과 은퇴한 고위 정치원, 공무원, 공안, 장교 등 가릴 것 없이 횡령 등 경제적인 이유로는 징역형을 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한 반부패 드라이브는 베트남 국민들이 공산당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부정적인 평가

반부패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회 격차이나 통제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9년 초에 발표된 신규 온라인 보안법으로 외국계 IT기술 회사들은 베트남 내 데이터 저장시설 설립이 의무화됐고 온라인상 베트남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삭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시사점

올 한 해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목표성장률이 4~8%로 설정돼 있고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도 6% 내외를 웃돌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경제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21년 1분기의 성장률이 4.48%를 달성함에 따라, 남은 2~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기존 목표치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하는 내각의 부담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임 지도부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자체 별로는 정부주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난해 감소했던 외국인 투자유치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영국 FTA 5월 1일 공식 발효

- 후속 행정절차 진행 후 한국산 원단 교차누적 인정 예정
- EU산 원재료 3년간 누적 사용 가능

베트남은 협상 시작 약 8년 만에 2020년 8월 EU와 FTA를 발효했으나, 영국의 EU 탈퇴에 맞춰 지난해 12월 영국과 별도 FTA를 체결하여 이를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시 적용하였다. 이후 관련 협정문 제9조에 의거하여 양국의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여 베트남-영국 FTA(이하 UKVFTA)는 2021년 5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UKVFTA는 기존 EU-베트남 FTA(이하 EVFTA)에 포함된 시장 개방을 통해 영국이 베트남과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영국 교역 관계

영국은 독일과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베트남의 세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다. 양자 간 무역은 2010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이후, 2019년까지 약 70억 달러 교역 규모를 달성하여 2010년에 비해 3배 성장하였다. 2020년 양국의 교역규모는 56억 4,000만 달러로 무역흑자는 42억 7,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베트남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제품은 가전제품, 신발, 휴대폰, 컴퓨터, 전자기기 및 관련 부품 등이다.

영국의 관세 철폐 일정

UKVFTA가 발효된 후 처음 6년 동안 영국은 EVFTA 관세 철폐율(즉, 70.3%)보다 높은 99.2 %의 관세를 제거 할 예정이다. 한편, 베트남은 EVFTA과 동일한 수준으로 48.5%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양국은 협정 발효로 인해 베트남이 1억 1,500만 달러의 관세를 절약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영국은 약 3,6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UKVFTA 발효로 베트남산 쌀은 15%에서 0%로 수입 가능하며, 특히 새우와 생선을 비롯한 많은 베트남 수산물 품목이 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영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존 EU 자격으로 FTA를 체결했던 한국, 베트남, 일본, 터키, 인도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규정이 EU와 당사국 간의 협정 상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당장의 FTA 활용에는 기 체결 FTA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또한 영국은 자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 아세안에 대한 파트너 자격 신청을 추진 중이며, 지난 1월에는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CPTPP 출범 당시의 참가국 이외의 공식적인 가입 신청은 영국이 처음이다.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인근 산업단지 살펴보기

- 산업단지 수요 지속 증가에 따라 토지임대율 상승
-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생산기지 이전 가속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글로벌 생산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세에 따른 불확실성은 신흥국 대부분의 경제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와 대비된다. 확산초기 효과적인 코로나19 통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으며 이는 투자가로 하여금 낙관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 충분했으며 안정적인 생산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남부 주요 5개 성/시 산업단지 현황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 세빌스 베트남(Savills Viet Nam)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베트남 남부 산업단지 총면적은 44,700헥타르이다. 약 40,000헥타르가 호찌민시, 빈증성, 동나이성, 룽안성, 바리아-붕따우성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찌민시(HCMC) 4,703헥타르 ▲ 빈증성(Tỉnh Bình Dương) 10,159헥타르 ▲ 동나이성(Tỉnh Đồng Nai) 10,066헥타르 ▲ 룽안성(Tỉnh Long An) 5,837헥타르 ▲ 바리아-붕따우성(Tỉnh Bà Rịa-Vũng Tàu) 9,327헥타르이다. 공업단지 수는 각각 ▲ 호찌민시 18개 ▲ 빈증성 31개 ▲ 동나이성 32개 ▲ 룽안성 22개 ▲ 바리아-붕따우성 12개이다.

* 헥타르(ha): 10,000m²

시사점

베트남은 한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 중 투자무역 최대 파트너이다. 2014~2019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6%대를 보여주었고,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국가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산업생산 활동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올해에도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 흐름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외국인투자청(FIA)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FDI 총 등록자본금은 8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4.7% 증가했다. 산업단지 개발사 KCN VIETNAM 최택진 팀장은 “EVFTA, RCEP 등 다자간 무역협정 가입, 미얀마발 리스크 반사이익 등이 베트남 투자로 이어져 산업단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호치민 무역관에 전했다.

각 지방성 당국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확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빈증성 VSIP-3 산업단지 확장안, 바우방현(Huyen Bau Bang) 700헥타르 규모 껀이쭝 산업단지 개발안을 포함한 공문 159/TTg-CN을 재가했다. 룽안성은 7개 신규 산업단지를 포함한 3만2300헥타르 규모 경제구역 개발안을 발표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 앞서 베트남이 진정한 생산 거점으로 거듭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다낭시, 고형 폐기물 처리장 프로젝트 추진

- 유일한 폐기물 처리장, 칸 손(Khanh Son) 매립지 포화상태에 다다라
- 일일 처리량 약 1,000톤 규모의 대형 폐기물 처리장 프로젝트 입찰공고 예정

코로나 이전 몇 년 동안 다낭시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낭시에서 배출되는 고형 폐기물량 또한 연평균 8~1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폐기물 일평균 배출량은 2030년까지 2,400톤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2년부터 운영돼 온 칸 손(Khanh Son) 매립지가 다낭시의 유일한 처리 시설이며, 현재까지 약 320만 톤의 쓰레기가 매립돼 있어 향후 1~2년 내에는 더 이상 쓰레기를 수용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 총리, 고형 폐기물 관리 강화에 대한 긴급 조치 발표

지난 2020년 1월, 당시 응우옌 쿠언 푸(Nguyen Xuan Phuc) 총리는 고형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및 시스템 변화와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고형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조치(No.41/CT-TTg)를 발표했다. 특히 5대 직할시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기술에 대해서 검토하고 비위생적인 매립 방식의 경우에는 소각이나 용해 등으로 처리 방식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지시했다.

다낭시 2030 환경도시 건설 계획 발표, “고형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

지난 4월 초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2030년까지 시를 환경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약 15조 5,400억 동(약 6억 7,200만 달러) 규모의 계획(No.1099/QD-UBND)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에는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 핵심 환경 문제 해결 등 4대 핵심 목표 아래, 2025년까지 총 고형폐기물의 95%를 기존 매립 방식에서 소각이나 용해 등 조금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다낭시 고형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F/S) 돌입, 3분기 입찰공고 전망

다낭시는 지난 2017년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폐기물 처리장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Pre F/S)에 대한 자금 지원 계약을 맺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프로젝트 규모 및 요구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는 타당성조사(F/S)가 진행 중에 있다. 3분기(8월, 잠정) 중으로 제출 서류 안내 등과 함께 입찰공고*가 올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 입찰공고는 <http://muasamcong.mpi.gov.vn/>에서 확인 가능(단, 언어는 베트남어)

시사점

다낭시는 최근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기물 처리장, 하수 처리장 등과 같은 환경 인프라 구축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환경 분야 인프라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입찰 관련 제출 서류는 베트남어로 작성되는 것이 좋으며, 베트남어로 번역된 경우에는 대사관의 공증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경험 기재가 필수이며, 경험 이 많거나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을수록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바디워시 시장동향

- 코로나19로 필수품이 되어버린 바디워시, 2020년 8%의 급격한 시장 증가
- 다양한 기능성, 천연 성분 함유, 세련된 패키징 등 정확한 소비자 트렌드 파악 필요

코로나19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이 일상이 되는 등 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베트남 소비자들 역시 손소독제, 바디워시 등 개인위생용품 구매를 더욱 늘리고, 성분과 브랜드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더 많은 바이러스가 인류와 공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하에 개인위생용품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소비자들 또한 다양한 기능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어 미백 기능, 향수 첨가 등 다양한 기능의 개인위생용품을 선보이며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규모 및 동향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 바디워시 시장규모는 2조 6,435억 동(약 1억 1,474만 달러)으로 특히, 코로나19사태로 2020년에는 전년대비 8%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바디워시와 같이 피부에 직접 닿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천연성분이 첨가된 제품에 대해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말차와 석류, 강황, 키위, 라즈베리 등과 같은 천연성분 및 유기농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입규모 및 수입국 동향

2019년 베트남 바디워시 제품(HS Code 3401.30)의 수입 시장 규모는 약 6,089만 달러로 2015년(715만 달러) 대비 약 8.5배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일본, 미국 등이 있다. 2019년 베트남의 한국산 바디워시 수입액은 약 851만 달러 규모로 전체 수입 대상국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30%에 육박하던 수입 시장 점유율은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

관세율 및 규제

HS Code 3401.30에 속하는 바디워시 제품은 한-베트남 혹은 한-아세안 FTA 협정에 의해서 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바디워시 제품의 경우에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서 10년 관세 철폐 품목으로 지정되어 향후 관세 0%가 적용될 예정으로 향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2019년에서 2024년까지 베트남 바디워시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8.8%로 시장규모는 2024년까지 약 6조 4,500억 동(2억 7,968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미백, 각질제거, 여드름 케어, 보습, 퍼퓸 등)을 갖추거나 피부에 무해한 천연 성분을 함유한 제품 등 세척 기능에만 충실했던 기존의 제품들의 기능 세분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의 녹색 건축 인증 현황

- 베트남 내 활성화된 녹색 건축 인증은 LEED(미국), LOTUS(베트남), EDGE(세계은행-IFC)
- 베트남 녹색 건축 인증 시장은 2020년 전체 건축 프로젝트의 9%에서 2025년까지 29%로 증대될 전망

녹색 건축 인증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녹색 건축 인증 제도는 건축 프로젝트의 설계와 시공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 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베트남의 녹색 건축 인증 종류

베트남에는 LEED, LOTUS, EDGE 등 대표적으로 총 세 종류의 녹색 건축 인증 제도가 있다. LOTUS와 LEED는 포인트 기반 시스템으로 인증, 실버, 골드, 플래티늄의 4개 등급이 있다. 건축 프로젝트가 LOTUS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총 8개(에너지 효율, 수자원 활용, 건축자재, 건강, 안락함, 부지 및 환경, 프로젝트 관리, 건축 혁신)의 사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물 완공 후 총 108점 중에서 최소한 40점을 얻어야 최종적으로 LOTUS의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다. LEED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 프로젝트는 총 12개의 사전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완공 후 총점 110점 중 최소 40점을 받아야 LEED 인증이 가능하다. EDGE는 패센트 달성을 인증 시스템으로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 프로젝트의 경우 각 에너지 효율, 수자원 활용, 건축자재 부문에서 20%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해야 EDGE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녹색 건축 인증 사례

베트남 녹색 건축 위원회의 LOTUS 인증 프로젝트의 예로는 동나이 신발공장 옆에 위치한 Pou Chen 유치원이 있다. 2013년 Vo Trong Nhia Architects가 설계 및 시공한 이 유치원은 공장 근로자 500명의 자녀를 수용하기 위한 곳이다. 건물은 통풍이 잘되는 구조 및 원형 건물 가운데에 있는 큰 전망구를 통해 학생들이 일조와 날씨의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단 옆에 위치하여 부모들의 복지를 도우면서 학생들이 자연을 벗삼아 학습하되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

시사점

- 베트남 정부, 각 부처, UNDP, 녹색 건축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
- 한국 녹색 인증 제도 해외 진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
- 한국의 건축 설계 사무소 및 친환경 건축 자재 기업 진출 염두에 둘 수 있어





2021년 베트남 자동차 산업 정보



정책 및 규제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베트남에서 차량 생산·조립·수입 사업은 외국인도 투자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2020년 베트남 투자법(Law 61/2020/QH14)이 2021년 1월 1일부 발효됐는데, 이에 근거해 현지에서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제조업은 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단독투자 가능한 분야다. 다만, △차량 보증 및 점검 작업 △차량 생산·조립·수입 △차량 검수 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조건부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는 외국인 단독 투자법인이든 합작기업이든 베트남 현지 투자기업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관련 조건부 사업 요건은 시행령 Decree 116/2017/ND-CP에 안내돼 있다.

주요 기업 현황

2018년 기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포함해 현지 자동차 제조업계에 속한 기업은 550여 개다. 이 가운데 '자동차 조립 및 제조' 기업은 약 40개로 추산된다. (자료: 2020년 11월 베트남 통계청) 한편, 베트남 자동차 제조 업계의 등록 투자 규모로만 본다면 현지에서 연간 생산 가능한 자동차 수는 68만 대에 이르나 실제 생산량은 30만 대가 채 되지 않는다.

수출입

베트남의 주요 완성차(CBU) 수입국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이며, ATIGA 발효 이래 두 국가의 수입량은 전보다 더욱 확대된 양상이다. 2019년 베트남의 대태국 수입 완성차는 7만4120대(전년 대비 33% 증가), 인도네시아는 4만 6,563대(전년대비 160% 증가)를 기록했는데 이 두 통계를 합하면 당년 베트남의 전체 수입 완성차 중 87%를 차지한다. 참고로, 2020년 베트남의 완성차 수입량은 전반 감소해 태국 수입차는 5만 2674대, 인도네시아는 3만5043대에 이르렀지만 두 국가의 수입 비중은 83%로 여전히 큰 존재감을 자랑했다.

유망 분야

베트남 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은 현지 정부의 '자동차 세율 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지 시행령 Decree 111/2015/ND-CP의 부록 4(Appendix IV) 자동차 부품 목록에 포함된다면, 이 자동차 부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부자재는 0%의 수입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베트남 내 자동차 부품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은 현지 차량 생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현지 시행령 Decree 111의 부록 4에 자사 생산 품목이 포함되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2021년 3월 기준,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세율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업은 8개에 불과하지만 이 가운데 4개 기업이 한국 투자 기업(모두 북부 Huynh-Thanh Cong, VinFast 생산 시설과 관련)이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 베트남, 코로나19 백신 구매기금 마련을 통한 대량 접종 추진

베트남 총리는 지난 5월 18일, 백신 구매 결의안(Resolution No. 09/NQ-CP)에 서명하고 국민 대규모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 구매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함. 이에 베트남 재정부는 중앙 정부 예산 이외에 지방 정부 예산 및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을 동원, 백신 구매 기금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재정부 장관의 서명을 받음. 보건부는 베트남 인구의 70%인 약 7,500만명에게 접종할 1억 5,000만 회 분의 백신을 구입 하려면 25조 2,000억 동이 필요하며 이중 중앙 정부 예산 16조 동, 지방 정부 예산 및 기업 기부금 9조 2,000억 동을 조달 하기를 원한다고 밝힘. 총 예산 중 21조 동은 백신 구입 비용에, 나머지는 백신 운송, 보관, 관리 비용으로 쓰일 예정임. 베트남은 3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선 접종 대상자 97만 7,032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완료함. 그러나 이는 총 인구의 1%에 불과하며 베트남 정부의 백신 접종 목표인 총 인구의 70% 접종을 위해서는 백신 구매 기금 마련이 불가피 함.

[VN Express, 5. 20]

▶ 호치민시, 코로나19 확산 대비 3가지 대응 시나리오 설정

- 1안(통제가능단계): 감염자 100명 미만 발생의 경우 무증상자, 경증환자, 감염의심자 구찌, 꺼져 야전병원, 제1 소아병원(어린이) 격리/중환자는 짜러이, 열대병원 등 상급 대형병원 이송
- 2안(통제가능범위내 확산): 감염자 100~1000명이 발생할 경우 제1 소아병원 등 일반병상 총 1,944개, 중환자 병상 200개 확보 등
- 3안(대규모확산): 감염자 1,000~5,000명 발생시 경증환자 임시 병원 이송 및 치료, 각 군에 위치한 문화체육 시설, 전시회장 임시 치료소로 전환 일반 병상 총 5000개 확보 등

[VN Express, 5. 19]

▶ 인도, 베트남·중국·태국산 태양광 패널 반덤핑조사 착수

인도 상공부는 베트남, 중국, 태국에서 인도로 수입된 태양광 전지 패널의 반덤핑협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힘. 조사 대상 품목은 2019년 7월~2020년 12월에 수입된 제품으로 HS 코드는 8541.40.11과 8541.10.12이며 덤프 마진은 약 2%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이에 대해 베트남 산업무역부 무역구제청은 조사 대상 베트남 기업에게 모든 입증 서류를 제출하고 반덤핑 사건에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를 고용할 것을 권장함. 인도는 10년 전부터 태양광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자국의 태양광 전지 패널 생산 업체를 보호하고자 수입산 태양광 패널에 수차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Vietnam Plus, 5. 19]



▶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베트남 제조업 차질 발생 및 생산 현지화 움직임 포착

세계적인 반도체 칩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제조업 전반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자동차) MITSUBISHI 베트남은 XPANDER 구매 예약자에게 차량 인도를 연기하고 SUZUKI는 XL7과 ERTIGA의 생산 물량을 제한함. (컴퓨터 및 전자제품) 컴퓨터 및 랩탑은 휴교령 및 락다운으로 인한 수요 급증에도 현지 생산 및 공급이 힘든 상황임. 반도체 칩 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제품 생산업체에게 더 높은 반도체 가격과 물류비 초래함. 결국 반도체 수입을 기다리지 않고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AT&S는 18억 달러를 투자, 베트남 내 두개의 공장을 증설하고 반도체 칩 생산 증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HAYWARD QUARTZ TECHNOLOGY는 다낭에 1억 1,000만 달러, INTEL은 호찌민 하이테크파크에 4억 7,5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하여 반도체 조립 · 테스트 공장을 건설하고 공급을 현지화 할 예정임.

[Vietnam Investment Review, 5. 18]

▶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베트남 철강·목재·축산업 난항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수입 휘발유 가격은 지난 5월 15일 대비 배럴 당 \$3 인상되고, 원목 가격은 15~ 40%, 스크랩과 철광석은 6개월만에 가격이 2배 인상됨. 철강 & 목재 산업은 전년에 비해 매출은 상승했으나 원자재 가격 폭등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경제적 손실 발생함. 이에 목재 회사들은 최대한 국산 자재를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철강 회사들은 추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대량으로 원자재를 구매하는 등 여려 대책을 마련 중임. 축산분야의 경우 옥수수, 콩, 콩가루 등 가축 사육을 위해 투입되는 사료 값이 전월 대비 2.48%, 전년 동기 대비 13.49% 상승함.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사료 가격은 수개월 전에 비해 평균 20,000동 이상 상승하여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VN Express, 5. 18]

▶ 베트남 철강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초 4개월간 수출량 50% 증가

베트남 세관에 따르면, 현지 철강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초 4개월간 수출량은 50% 증가함. 지난 1~4월 베트남의 철강 수출량은 390만 톤, 수출액은 27억 9,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수출량 50.4% 증가, 수출액 96.3%가 증가함.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연초 이후 국내 철강가격이 45% 이상 급등한 이후, 철강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및 관련 당국에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함. 베트남 철강 협회는 2분기 경 현지 철강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현재 상황에 따라 3분기 말까지 철강 가격이 유지 될 것이라 재 전망함.

[The Saigon Times, 5. 17]

▶ 호치민시, 기침·열·목감기·호흡기 관련 약 구매 시 (소비자가) 보건신고 의무

5월 17일, 호치민시 보건청은 소비자가 호흡기 질환 관련 증세로 약을 구매할 경우 보건신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역 내 보건 당국들에 발송함. 또한, 호치민시 보건청은 베트남 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나,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알림. 베트남은 현재 4차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호치민시는 코로나-19 방역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높인 상황임.

[tphcm.chinhphu.vn, 5. 17]



▶ 베트남 제지 및 포장재 제조 분야 전망 밝아

베트남의 대표적인 제지 및 포장재 업체인 An Phat Bioplastics JSC의 전년 동기 대비 올 1분기 매출액은 45.04% 증가했고, Dong Hai 주식회사 역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7% 증가함. 또한 Thuan Duc JSC는 전년동기대비 올 1분기 매출이 52% 증가하였으며, 베트남 금융기관 SSI에 따르면 베트남 도시화율 성장과 함께 올해부터 2025년까지 종이 포장 소비가 1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식품과 무알코올음료 소비에 따른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수요 또한 영향을 받을 것 이라 예측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5. 17]

▶ 베트남, 휘발유와 원유 가격 동시 상승

5월 12일 기준, RON95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8,420동으로 전월에 비해 560동 인상되고 E5 RON 92는 리터 당 19,530동으로 620동 상승함. 또한 4월 27일과 비교하여 등유 13,820동(+570동), 경유 14,770동(+450동), 중유 14,270동(+250동)으로 가격이 변동됨. 베트남 부총리는 지난달 유가 조정 회의에서 산업무역부와 재무부에 세계 유가를 면밀히 반영한 국내 유가의 탄력적 관리를 요청한 바 있음. 또한 각 부처는 유가 안정을 위해 필요 시 유가안정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함.

[VN Express, 5. 13]

▶ 베트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 증가

Nextrans Venture Capital Fund는 투자자들이 베트남 스타트업에 투자한 건수는 줄었으나 규모는 증가했다고 밝힘. 투자건수는 2019년 30건에서 2020년에는 20건으로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는 16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하여 약 절반으로 감소함. 그러나 투자 기업의 스타트업 기업 투자 규모는 1억 5천만 달러에 육박하여 전년 동기보다 34% 증가함.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펍테크이며, 물류, 서비스, 부동산, 교육기술, 의료기술 순으로 뒤를 이음. 또한 온라인 결제, 온라인 부동산 분야에서도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주요 베트남 현지 투자기업은 Nextrans, VSV Capital-Vietnam Silicon Valley, Mekong Capital, 500 Startups Vietnam, Vietnam Investment Groups, IDG Ventures Vietnam 등이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벤처캐피털 회사들 또한 투자 대상으로 잠재력있는 베트남 현지 스타트업 기업을 찾고 있음.

[VN Express, 5. 12]

▶ 베트남의 약국 체인 소매기업, 사업 확장 추세

Ken Research에 따르면 베트남의 약국 체인점은 2025년까지 연평균 8.1% 성장하고 2050년까지 중위 연령이 42.1세로 상승하는 것에 기인하여 약국 체인 관련사업 역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Pharmacity와 Long Chau Pharmacy 등 베트남의 유명 약국 체인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점 확장에 초점을 두고 국내외 업체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중임. 국내 업체 뿐만 아니라 일본의 Matsumoto Kiyoshi와 홍콩의 Watsons 등이 베트남 약국 체인 사업에 이미 진출함에 따라, 시장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함. 그러나 대부분의 약국 체인점들은 본사의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점포당 매출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수의 상위 업체들만 신규 점포 개설에 따른 매출 증가와 두 자릿수의 매출 증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Vietnam Investment Review, 5. 12]



▶ Gojek, 차량 호출 서비스 추가

인도네시아의 모바일 앱 운송수단 호출 서비스 업체인 Gojek은 앞으로 수 주 안에 베트남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와 더불어 WePay와 제휴한 현금 없는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신규 서비스 명칭은 GoCar이며, 이로서 Gojek은 기존 서비스인 2륜차 호출 서비스 GoRide, 음식 배달 서비스 GoFood, 택배 서비스 GoSend과 함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VN Express, 5. 5]

▶ 수소 연료전지 제조사 플러그 파워, SK그룹과 합작투자

미국의 수소 연료전지 종합 솔루션 기업인 플러그 파워는 SK그룹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베트남, 한국, 중국 등의 잠재시장 진출에 관심을 표명함. 플러그 파워는 2023년까지 한국에 공장을 설립 할 예정이며 SK그룹의 중국·베트남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에도 진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SK그룹은 지난 2월 플러그 파워에 16억 달러를 투자 했으며 2025년까지 수소 투자로 인하여 27억 달러의 순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5. 5]

▶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4.7

베트남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7로 전월 53.6 대비 1.1p 상승, 2018년 11월 (56.5)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구매관리자지수를 기록함. IHS Markit은 4월 구매관리자지수 상승 원인으로 해외 발주량 증가와 안정적인 코로나19 컨트롤을 꼽음.

* 구매관리자지수(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기업의 신규주문·생산 및 출하정도·재고·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을, 50미하는 수축을 의미 함. 따라서 제조업의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는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됨. (한경경제용어사전)

[HIS Markit, 5. 4]

▶ 삼성전자, 베트남 정부에 신재생에너지직접전력구매계약(DPPA) 시범사업 참여요청

3월 29일, 삼성전자 복합단지장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삼성전자가 베트남 정부가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직접전력구매계약(DPPA) 시범 사업 참여 및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DPPA는 기업이 베트남 국영전력 회사인 베트남전력공사(EVN)를 통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협의중인 DPPA 초안에 따르면 시범 운영 전력 규모는 약 1,000MW임. 베트남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DPPA사업을 2023년까지 시범운영 한다고 밝힌 바 있음. VNExpress는 삼성 외에도 이 시범운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은 3~4개 더 있는 것으로 전함.

[VN Express, 5. 4]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Khanh Hoa성 변전소(500kV) 조달
 - 하노이 서부 변전소(500kV) 건설
 - Ha Tinh성 수상 태양광발전 설비 조달
 - Can Tho 변전소(500kV) 건설
-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oohopark@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Khanh Hoa성 변전소(500kV) 조달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EVN NPT ○ 웹사이트 : www.npt.com.vn ○ 연락처 : +84-24-2222-6666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Khanh Hoa성 Van Phong지역 ○ 규모 : 약 18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재원 ○ 프로젝트 단계 : 감리 및 기술설계 검토 중 ○ 입찰예정일 : '21. 6월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압기 900MVA-500 조달 및 설치 - 배전설비(circuit breaker, isolator 등) 조달 및 설치

- 하노이 서부 변전소(500kV) 건설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National Power Transmission Corporation(NPT) ○ 웹사이트 : www.npt.com.vn ○ 연락처 : +84-24-2222-6666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Đồng Quang, Quốc Oai (하노이 서부 약 20km) ○ 규모 : 10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편당 ○ 프로젝트 단계 : F/S 단계 ○ 입찰예정일 : '21. 9월 ○ 세부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노이 서부지역 500kV 변전소 신축 프로젝트 - 300MVA 변압기 3개 조합 통한 500kV-900MVA 변전소 건설 - 변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 장비 및 부속품 공급 및 설치



(입찰정보)

□ Ha Tinh성 수상 태양광발전 설비 조달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Thai Khang Minh Technology JSC (Thyssenkrupp Materials) ○ 웹사이트 : www.tkmvietnam.com.vn ○ 연락처 : +84-24-6694-6789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Ha Tinh성 Ke Go호수 ○ 규모 : 약 58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펀딩, 상용대출 ○ 프로젝트 단계 : F/S완료, 기술설계 검토 중 ○ 입찰예정일 : '21. 11월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품목 : ESS, Solar panel - Ke Go호수 50ha, 50MW 규모 수상 태양광발전 설립

□ Ha Tinh성 수상 태양광발전 설비 조달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National Power Transmission Corporation(NPT) ○ 웹사이트 : www.npt.com.vn ○ 연락처 : +84-24-2222-6666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Can Tho시 Thot Not군 ○ 규모 : 약 11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펀딩 ○ 프로젝트 단계 : 기술설계 진행 중(~'21.9월) ○ 입찰예정일 : '21. 11월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규모 : 9.4 ha - Capacity : 1,800 MVA(500 kV 변압기 2개) - 계약형태 : Lump sum - 변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공급 및 설치

2021년 1분기 베트남 전력산업 개황

가. 베트남 전력시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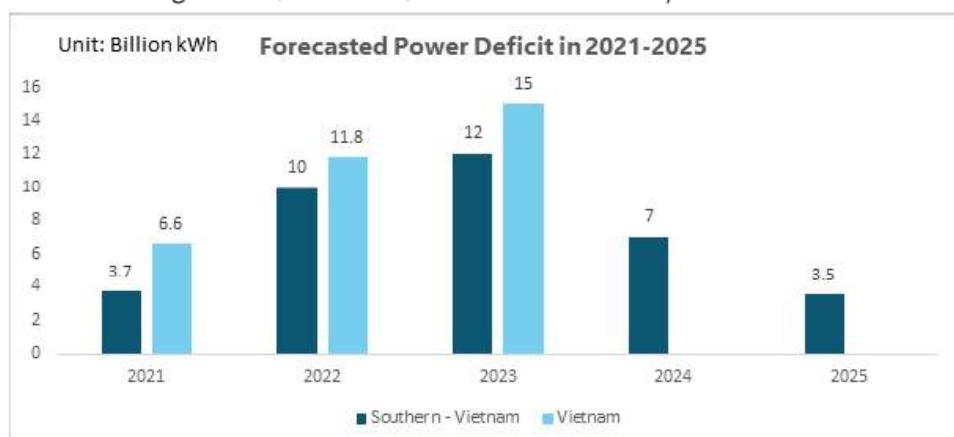
- 베트남 전력공사(EVN)에 의하면, '20년 말 기준 베트남 전력 설비용량은 69,300MW으로 전년대비 14,000MW 증가
 - * 아세안국가 2위, 전 세계 23위 수준
-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 및 소비는 매년 8.5~9.5% 증가 예정
 - 매년 5,000~7,000MW 수준의 용량 증설 필요
- '20년~'29년 베트남 전력용량 연간 평균 7.8% 증가 전망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전량(TWh)	253.2	276.8	293.5	311.6	329.6
소비량(TWh)	239.9	263.4	279.8	298.2	318.6
용량(MW)	57,780.5	64,731.6	72,845.5	81,624.8	87,288.2
구분	2026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발전량(TWh)	348.3	368.0	387.7	407.9	428.9
소비량(TWh)	339.4	360.9	382.6	403.9	425.7
용량(MW)	92,661.6	99,047.5	104,432.0	110,096.9	116,055.4

* 상기 숫자는 추정치 값

* 자료원 : Fitch Solutions, Vietnam Power Report Q1 2021

- PDP 7차 전체 프로젝트 62건 중 47건의 지역으로 기준 계획 대비 용량 증가량 10,000MW 미달
 - * 자료원 : '20. 5월 MOIT 조사자료
- EVN, 화력발전소(Block B, Blue whale gas 등) 구축을 통해 '25년까지 전력부족분 해소 계획
 - * Blue whale gas : 베트남 중부 해안에 위치한 1,500억 m³ 천연가스 매장지역



* 자료원 : MOIT, KBSV Research



2021년 1분기 베트남 전력산업 개황

나. 화력발전

□ 석탄

- 최근 외부조사에서는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감축시킬 것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안정적 전력공급 확보 등의 이유로 이행 가능성 낮음
 - 기존 진행 중인 15GW 규모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무산 권장
 - 향후 발표예정인 PDP 8차에서의 석탄 비중 '25년까지 37% 감축 권장
 - * PDP 7차, '30년까지 석탄 비중 53% 유지 계획
- 베트남 정부의 정책과 투자로 인해 석탄화력발전량 '20년~'29년 연 평균 7.4% 증가 전망
 - 현재 14.9G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가 건설 중이며, 추가 30.3GW 규모 프로젝트 착공 이전 단계

□ 천연가스

- LNG 터미널 가동, 대형 투자가들의 관심도 증가 등으로 베트남 천연가스 발전량은 '23년~'29년 연간 평균 7.8% 성장 전망
 - * 자료원 : Fitch Solutions, Vietnam Power Report Q1 2021
- 대표적인 LNG 발전 시설로 Thi Vai LNG 터미널(베트남 최초 Regasification 시설)은 '22년 상용화될 예정이며, Thi Vai 항만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Nhon Trach 3 & 4 발전소는 '23년~'24년 완공될 예정

다. 수력발전

- 수력발전 점진적 축소 중이며 '29년에는 베트남 전체 전력량의 21.6%(20.5GW 이하)로 전체 비중 감소 예상
 - 화력발전의 비중 증가, 수자원 및 생태계 보호 등으로 인해 수력 발전의 향후 10년 연 평균 성장을 1.25%에 그칠 것으로 전망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력발전 프로젝트
 - Hoa Binh 수력발전소 증설(480MW) '21년 1분기 착공, '24년 하반기 완공 예정, 총 투자금액 397백만 달러
 - Tri An 수력발전소 증설(200MW), 현재 Dong Nai성 투자승인 대기 중으로 '25년 완공 예정



2021년 1분기 베트남 전력산업 개황

라. 신재생에너지 (수력 외)

□ 개요

- 환경 관련 투자 강화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는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어 '29년 25GW 규모로 확대 전망
- 그러나, 전력망 부족 및 기저부하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4.2% 수준
- '20년 말, ERAV(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of Vietnam)는 생산자가 직접 기업소비자에게 전력 판매·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DPPA(Direct Power Purchase Agreement) 시범프로그램을 시행함
 - * '21년~'23년 전국적으로 시행, 총 규모 400MW~1,000MW

□ 태양광

- '20년 12월 기준, 베트남내 102개 태양광 발전소(6,314MW) 운영 중이며 신규 프로젝트 135건(10,000MW)이 PDP에서 승인됨
- 110-500kV 전력망 지속 구축·향상 중이나 신규 프로젝트의 요구 용량대비 부족 상태
 - 이에, MOIT는 Binh Thuan 및 Ninh Thuan 지역에 추가 220kV 및 500kV 송전망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옥상형 PV시스템 최근 급성장 중으로 태양광 발전량의 11% 비중을 차지
 - '17년 1월부터 '20년 5월까지 총 578MW의(22,900 가구 및 5,096 상업용 건물) 옥상형 PV시스템 설치됨
 - * 자료원 : EVN
- 베트남 정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FiT(Feed-in-Tariff) 및 인센티브 (세금면제 등) 정책 시행 중
 - FiT는 지상형(USc7.09/kWh), 수상형(USc7.69/kWh), 옥상형(USc8.38/kWh)으로 Decision 13/2020/QĐ-TTg('20년 4월)에서 3종류로 정의됨
 - FiT 혜택은 COD(Commercial Operation Date) 이후 20년 동안 적용되나, '20년까지 상용화가 된 프로젝트 한해서만 지원됨
 - * 혜택대상 COD 기한연장('21년까지)에 대해 논의되었으나 결정된 사항 없음



2021년 1분기 베트남 전력산업 개황

□ 풍력 발전

- MOIT, 연안 및 해상지역 잠재 풍력발전량이 475GW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여 Binh Thuan, Bac Lieu, Cau Mau 등 지역에 신규 프로젝트를 PDP에 제안함
- 신규 프로젝트 92건(7GW) '20년 6월 승인, '25년까지 총 용량 12GW 구축 목표
 - * 북중부 16(941MW), 서중부 9(336MW), 서고원(2,433MW), 남동·남서 38(3,269MW)
- 현재 풍력발전 프로젝트 250건(45,000MW)이 PDP 8차 승인대기 중
 - 그러나, 용량과부하의 위험으로 인해 MOIT는 '20년 10월부터 PDP 8차 공표 전까지 모든 지방성 풍력발전에 대한 승인을 일시 중단함
- 풍력발전 FiT는 Decision 39/2018/QĐ-TTg에 의해 육상(8.5USc/kWh), 해상(9.8USc/kWh)으로 정의됨
 - 기존 COD 기한은 '21년 11월까지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프로젝트 지연 중
 - 이에, MOIT는 '21년 11월부터 '22년 12월 COD건에 대해 육상(7.02USc/kWh), 해상(8.47USc/kWh), '23년 COD건에 대해 육상(6.81USc/kWh), 해상(8.21USc/kWh) FiT 혜택 제공 추진 중

마. PDP(Power Development Plan)

- MOIT 산하기관인 Institute of Energy에서 PDP 8차('21년~'30년, '45년 전망) '21년 2~3분기에 총리에 제출 예정
- PDP 8차 핵심내용
 - '25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감소시키는 대신 LNG를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3%로 증가 권고
 - '25년~'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배가 확대하며 풍력발전은 3배 이상, 태양광발전은 PDP 7차 대비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
 - '26년~'30년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은 없으며, PDP 7차의 17GW 규모 기존계획은 '30년 이후로 연기되거나 무산될 것으로 예상
 - '30년에 전력부족 현상 전망에 따른 전력 수입량 1.2%에서 5%로 확대 전망



2021년 1분기 베트남 전력산업 개황

< PDP 7차 및 8차(안) 세부계획 >

구분	2025				2030			
	7차		8차(안)		7차		8차(안)	
	용량	비중	용량	비중	용량	비중	용량	비중
석탄	47,575	49	35,088	34	55,167	43	38,668	28
가스	15,054	16	15,480	15	19,037	15	26,239	19
수력	20,361	21	24,768	24	21,886	17	24,858	18
신재생	12,063	13	23,736	23	27,195	21	41,430	30
수입	1,447	1	4,128	4	1,554	1	6,905	5
원자력	-	-	-	-	4,662	4	-	-
계	96,500	100	103,200	100	129,500	100	138,100	100

* 단위 : MW, % / 소수점 반올림

< PDP 8차 프로젝트 목록(안) >

연번	프로젝트명	위치	용량(MW)	COD(예정)
1	Dung Quat I Gas Combined Turbine	Quang Ngai	750	'26
2	Dung Quat II Gas Combined Turbine	Quang Ngai	750	'24
3	Dung Quat III Gas Combined Turbine	Quang Ngai	750	'25
4	Mien Trung I Gas Combined Turbine	Quang Nam	750	'24
5	Mien Trung II Gas Combined Turbine	Quang Nam	750	'25
6	Quang Tri Gas Combined Turbine	Quang Tri	340	'26
7	O Mon III Gas Combined Turbine	Can Tho	1,050	'25
8	O Mon IV Gas Combined Turbine	Can Tho	1,050	'23
9	O Mon I Gas Combined Turbine	Can Tho	1,050	'26
10	Na Duong II Coal Fired Power	Lang Son	110	'23 Q1
11	An Khanh II Coal Fired Power	Bac Giang	650	'23.6
12	Nam Dinh I Coal Fired Power	Nam Dinh	600 x 2	'24.12, '26.6
13	Nhon Trach III&IV Coal Fired Power	Dong Nai	1,500	'23~'24
14	Vung Ang II Coal Fired Power	Ha Tinh	600 x 2	'25.1, '25.6
15	Quang Trach I Coal Fired Power	Quang Binh	600 x 2	'24.1, '24.6
16	Quang Trach II Coal Fired Power	Quang Binh	600 x 2	'25
17	Van Phong Coal Fired Power	Khanh Hoa	660 x 2	'23.6, '24.1
18	Vinh Tan III Coal Fired Power	Binh Thuan	660 x 3	'25.6, '26.1
19	Song Hau II Coal Fired Power	Tra Vinh	600 x 2	'25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

□ 한국관광공사는 ?

- 1960년대 국내 관광산업의 태동기부터 오늘까지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척박한 환경에서 관광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닦았던 과거를 넘어, 오늘날에는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민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라는 미션을 가지고, △지역관광 성장 견인, △고품질 관광 경쟁력 확보, △관광산업 융복합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균형성장 등을 4대 전략방향으로 삼아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1962년에 설립되어 '관광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공기관

□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는 ?

- 한국관광공사는 총 34개의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노이 지사는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

-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한국을 찾은 베트남 관광객은 55만명에 달해 아세안 국가 중 태국 다음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해오던 시장이라 코로나로 인해 한국-베트남 간의 관광교류가 중단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 우리 지사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최적의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코로나19 창궐기) 온라인 중심 마케팅 및 비대면 기반 조성

□ 오프라인 마케팅을 대체하여 온라인 마케팅 강화 및 신규 비대면 사업 도출

(코로나19 안정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너지 창출

□ 코로나19가 안정화됨에 따라 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행사 추진

코로나19 극복 및 선점기) 적극적인 오프라인 행사 개최

□ 적극적인 오프라인 행사 개최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선제적 마케팅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우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하여 우리 지사가 운영하는 베트남에 한국관광 홍보 사이트에 게시하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격주로 3만 여명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온라인 B2B 상담회를 진행하고 한국문화원, 콘텐츠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사파, 다낭, 컨터, 달랏 등을 찾아 한국 관광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은 기본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베트남의 특성을 활용하여, 롯데 센터 하노이에 상설 한국 관광전시 공간을 설치·운영했으며 한국 본사와 협력해서 온라인 콘서트를 오프라인 팬미팅과 연계하여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여행사와 협조하여 개최한 한국 관광영화제도 기억에 남습니다.



롯데 센터 하노이 한국관광 홍보 공간



한국 관광영화제 (하노이/호치민 CGV)



드림 콘서트 (국립 음대)



한국 관광영화제 및 관광 퀴즈 대회

□ Post Corona ? 향후 계획은 ?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상적인' 사업이라는 것 이 '기준의 틀에 갇힌 매년 똑같은 업무의 반복'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기도 했으니 코로나가 역경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 코로나 이후 우리 지사는 '온라인 콘서트의 오프라인化', '유명 백화점 활용 한국 관광 전시관 운영', '베트남 여행사 공동 한국 관광영화제 개최', '커버댄스 온라인 공모전', '한국 관광사진 온라인 공모전', '한국-베트남 여행업자 온라인 B2B 개최', '하롱베이 크루즈 활용 한국 관광홍보를 위한 언론인 초청' 및 '베트남에서 체험하는 한국관광 상품 최초 출시' 등 신규 사업을 대거 추진했습니다.
- 코로나 탓을 넘어 코로나를 발판으로 삼아 타 국가의 관광공사 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한국관광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관광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공기관입니다.



※ 코로나19 4차 확산 이전에 인터뷰 진행 하였습니다

CAMMSYS

베트남을 발판으로 글로벌 캠시스로 도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비즈니스뉴스에서는 카메라모듈부터 전기자동차까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캠시스 비나를 방문했습니다. 환한 미소가 편안함을 주는 김순영 법인장님의 반갑게 맞아 주셨는데요. 독자 여러분께 캠시스 탐방 이모저모를 지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작성: 박민준, 조아라)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장님!

먼저 캠시스는 어떤 회사인지와 베트남 법인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캠시스는 스마트폰용 카메라모듈을 생산 및 공급하고, 전기차와 전기차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초음파 지문센서 모듈 및 하드웨어 보안장치 관련 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력은 카메라모듈이고 전기차 및 지문센서는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시스 비나는 2014년에 설립되어 2015년도부터 양산 및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생산물량을 단계적으로 베트남으로 이전시켜야 하는 시기에 마침 제가 2017년 부임하였고, 이후 베트남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지금은 매우 건전하게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캠시스 비나 개황>

법인명	CAMMSYS VIET NAM CO., LTD.
대표	김순영 대표
설립일	2014년 1월
임직원수	약 3,800명
주요제품	모바일 카메라모듈 제조(고화소, 듀얼 카메라모듈 양산)
생산 CAPA	월 1,700만대
누적 투자금	약 1,260억원 (공장, 설비 등)
소재지	베트남 빈푹성 빙수엔현 바히엔읍 바티엔공단



2017년 업계 최초 Dual 카메라 양산 및 납품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에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과 전장 솔루션 관련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베트남 과학기술부 하이테크 기업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해인 2019년에는 업계 최초로 갤럭시S 후면 카메라를 납품하였고, Quadruple 카메라를 양산 및 납품하여 치열한 카메라모듈 생산 분야에서 다시 한 번 최고 수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부임하신 이후 법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군요. 그렇다면 그 중에 가장 강조하신 점은 어떤 점인가요?

이전에는 직원 분들이 희미하게 가지고 있었던 '손익 마인드'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월 말 직원들과 실적을 확인하고 함께 리뷰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지요.

두번째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애사심입니다. 조금 철 지난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베트남 법인 대표로 부임하면서 '본사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기지인 베트남 법인을 왜 나에게 맡겼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하고 회사를 신뢰하는 마음. 즉, 애사심을 베트남 법인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직원들이 이와 같은 마인드를 갖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직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베트남 관리자들에게 까지 이러한 주인의식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CAMMSYS

빈푹성이 작년 초 코로나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 대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2020년 4월 코로나로 인해 공급해야 할 물량이 급감하였습니다. 임업을 중단하고 연차를 소진시키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그래도 인력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논의를 거친 후에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일단 다시 공급물량이 늘어날 경우 대응이 마땅치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직원들은 내보내면 어떻게 직원들이 회사를 믿고 일하겠는가’라는 고민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주재원 급여반납 등의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맸고,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고통분담 방식을 알려주는 동시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사를 이탈하지 말고 신뢰하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후 다행이 줄어들었던 물량이 회복이 되었고 예전같은 운영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부임 초기에는 매주 토요일 임원들이 직접 불우사우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도 전달하고 겸진비용도 지원하며 격려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토요일 점심배식을 법인장과 임원들이 직접 하기도 했지요. 이런 방식으로 베트남 직원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정례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직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들이 예전 대비 직원들의 이탈률을 줄이고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심배식 봉사



우수직원 한국본사 방문



전직원 연말 행사



중부지방 폭우 물품지원(CSR활동)



CAMMSYS



직원이 3,000명이 훨씬 넘는 큰 회사의 법인장으로 계시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한편으로 외롭고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는지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외롭더라고요. 처음 1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있고 그게 훨씬 편했을텐데 제가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다보니 반발도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 제가 하려는 방식에 처음에는 잘 공감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기도 하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수월한 편입니다.

스트레스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있는 거겠죠. 저도 비슷합니다 운동하면서 풀고 또 좋은 분들이랑 술잔을 기울이면서 푸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효과적인 힐링 방법인 것 같아요. 일요일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막내하고 좀 놀다 보면 스트레스가 어느덧 쑥 풀린답니다.

<KBS 중견만리에도 소개된 캠시스 비나>





CAMM5YS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베트남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조언 좀 해 주시죠

베트남은 매력적인 곳입니다. 아직 1인당 GDP가 4천불도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에 진출했던 여러 한국 기업들이 철수해야 했던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에 진출했다가 중국에서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그럼 점을 염두에 두고 베트남에서 현지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캠시스 전기차 생산 기술 혹은 SCM(자재 네트워크) 제공 능력이 있으니 재력이나 현지 네트워크를 갖춘 베트남 파트너를 찾아 협업하는 모델입니다. 물론 방식은 기술제휴 등 여러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현지파트너와의 협력을 먼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베트남만 보고 베트남에 오지 마시고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들어오시라는 점입니다.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 중 단순히 인건비가 저렴하여 투자자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부분도 좋지만 베트남을 통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지로 진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당연히 기술력에서 우위를 갖춰야 할 텐데, 저희처럼 하이테크 기업인증 등을 통해 세제 등의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좋구요. 아무튼 저희 회사도 캠시스 비나를 넘어서 캠시스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보다 장기적인 청사진을 준비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요즘 가장 핫한 분야가 전기차 부문인데요.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 베트남에서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는 친환경 위주의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구요. 기존 사업인 카메라모듈, 블랙박스 등과의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여 작년에 첫 차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차는 2인승인데요.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편안하고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1회충전으로 80km주행가능) 베트남내 주요 자동차회사의 최고경영진이 직접 시승해 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이 아직은 저소득국가라 2인승 차보다는 4인승이 적합하기 때문에 4인승 차량도 개발 중인데요. 내년쯤 출시 예정입니다.

저희는 전기자동차 관련 지속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차량용 스마트 키와 자체 개발한 지문센서 그리고 차량 내 카메라 탑재도 고려 중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출장길이 편해져서 본사 임원진을 베트남에 모시고 또 코트라를 통하여 신규사업 관련 베트남 여러 파트너를 만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끝>





모르면 손해보는 외국환거래법

신한베트남은행 외환사업부 김도운 부장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법을 반드시 알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있다고 가정하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대충 느낌이 오겠지만,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이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답은 “아니오”이다. 내가 베트남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한국에서 하던 일을 모두 접고 전 가족이 전 재산을 들고 베트남에 와서 법인이든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에 옮인을 하는 경우이다. 흔히 말하는 투자이민의 경우이다. 이럴 경우,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은 베트남에서 뭘하는 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다만, 전 가족이 전 재산을 들고 대한민국을 떠난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베트남으로 가져온 전 재산은 내가 구워먹든 삶아먹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

다음은, 내가 베트남에서 열심히 사업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뼈까지 묻을 생각은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나 혼자 베트남에 와서 법인이든 개인사업자 형태이든 사업을 하되, 가족들과 주된 재산은 한국에 남겨놓을 생각이다. 퇴로는 하나 열어 놓은 셈이다.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답은 “예”이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할때부터 사업을 접고 들어올 때까지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은 나를 주시하고 있다. 내가 베트남으로 가져온 재산은 최소한 구워먹었는지 삶아먹었는지 신고를 해야하고, 얼마나 남았는지 까지 관심을 받게 된다. 마지막의 경우는, 나는 한국에서 계속 주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베트남에서도 사업을 같이 해야 하는 경우이다. 여러가지 이유로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베트남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기로 했다던가, 그런 공장의 협력업체로써 베트남에 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도 정답은 “예”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정말로 예”이다.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은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순간부터 그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베트남으로 가져온 재산은 구워먹었는지 삶아먹었는지, 어떻게 구워먹고 있는지 삶아 먹고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까지 쭉 관심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두번째 질문이다. 여러분이 생각했을때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경우는 위의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일까. 정답은 아마 대부분 이 글을 읽고 있으신 여러분이거나 또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 마지막의 경우, 즉 한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베트남에서도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나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흘러, 내가 인지했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1. 운영자금

한국에 있는 회사의 대표 입장에서는 베트남 공장 또는 회사는 당연히 내 자식이다. 따라서 내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보내주고 싶은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베트남 공장 또는 회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그냥 운영자금으로 송금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운영자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자본금이나 금전대차라는 이름의 꼬리표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해당 거래를 신고한 이후에 송금을 보낼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거래를 신고한 이후에 송금을 수취할 수 있다.

2. 보증

베트남의 공장 또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을때 베트남 은행에 한국에 있는 회사가 보증을 서는 경우들이 꽤 자주 있다. 보증의 형태는 크게 보면 2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번째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Standby-LC(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베트남 은행으로 보내는 형태가 있으며, 두번째는 베트남 은행의 보증서 양식에 한국에 있는 회사가 직접 사인하는 형태가 있다. 첫번째의 경우는 대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Standby-LC(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은행에 가야하고,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보증에 대한 신고를 받고 Standby-LC(지급보증서) 발급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번째의 경우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베트남 은행의 보증서 양식을 이메일로 받아서 사인을 한 다음, 공증등을 받아 베트남 은행으로 직접 보내기 때문에, 중간에서 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법을 체크해 줄 사람이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나중에 행여라도 베트남에 있는 공장 또는 회사가 베트남 은행의 대출을 갚지 못해서, 본사가 대신 갚아주기 위해 해외송금을 보내려 은행에 올때, 그때서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되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3. 제3자 지급

일단, 제 3자 지급에 대한 정의 먼저 말하고 시작하겠다.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수출입 등의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할 때, 계약의 당사자들간에 자금을 주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거래의 당사자들간에 자금을 주고 받지 않고, 제3자가 자금을 주고 받는데 있어서 개입되는 경우를 제3자 지급등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Shinhan Bank

문제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베트남에 있는 회사는 심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이긴 하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제3자라고 하는데 있다. 따라서 상대방 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베트남 공장에서 원료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원료계약의 당사자가 베트남 공장이라면, 베트남 공장에서 원료에 대한 결제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에, 똑같은 원료라고 하더라도 원료계약의 당사자가 한국에 있는 회사라면 결제자금은 한국에 있는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원료계약시 계약의 당사자를 어디로 할지는 향후의 자금흐름과 결부시켜 결정해야 할 것이다.

4. 상계

상계라 하면 줄 돈과 받을 돈이 있을 경우, 흔히 말하는 통치고 차액만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회사와 베트남에 있는 회사간에 흔히, 그리고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신고없이 상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기에 상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몰라서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부디 일상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최소한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게 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끝>



법무법인 아세안

베트남 현지직원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지급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jchoi@alfcounsel.com

甲사는 베트남 H시 소재하고 한국 모기업이 100% 출자 투자하여 운영 중인 제조업체이다. 베트남 현지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대체휴가 제공 가능 시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금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노동법상 현지직원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및 산정의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다.

베트남 현지직원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베트남 법인 소속직원이 근로계약상에 규정된 시간표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어떤 경우든 사용자(회사)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베트남 노동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일 또는 주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주 단위로 할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베트남 노동법상 정규 근로시간 외에 근무의 경우 '초과근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베트남 노동법상 위 정규 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 주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다.

- 1) 근로자의 동의 하에,
- 2)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초과근무시간 제한을 준수 하며,
- 3) 1개월 동안 연속하여 많은 날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위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쉬지 못한 시간수에 대한 보상휴가를 제공함.

위와 같이 사용자는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초과근무시간 제한 또한 준수하여야 하는 바, 1일 초과근무시간은 1일 정규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주 단위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 근로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휴일, 신정, 구정 연휴,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아가, 1개월 초과근무시간은 최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초과근무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아세안

또한, 베트남 개정노동법에 의거하여 베트남 정부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정 사안의 경우에도, 예컨대 제염, 전자 산업, 섬유의류 수출, 신발, 농림업 가공, 수산, 발전 및 배전, 통신, 정유, 상하수 근로분야에도 최대 300시간 초과 시간제한이 있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숙련근로자가 요구되는 특수작업 또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계절별(seasonal) 작업에 한하여서도 최대 300시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점 주지하도록 한다. 또한, 자연재해, 전염병, 화재, 기타 재난 등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 안보와 관련한 특수한 경우에도 연간 300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이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정된 날짜에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점 또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투자기업이 주지할만한 내용으로 사료된다.

초과근무 실시 조건과 관련하여 '1개월 동안에 연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란 근로자가 1개월 동안에 연속적으로 최대 7일을 초과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식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 노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甲사의 사례의 경우, 베트남 현지직원의 휴일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대체휴가로 갈음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바, 이는 해당 현지직원들과의 별도 합의를 전제로 300%의 초과근무수당(공휴일 또는 연차휴가일의 경우)을 대신하여 대체 휴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체 유급휴일은 초과근무수당을 전환하여 갈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사내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대체 유급휴일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나아가, 현지직원이 초과근무수당 대신 부여받은 대체 유급휴일을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베트남 내 한국투자기업은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 외에도 주지할 만한 사항으로 야간근무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이며, 야간근무시간 동안은 45분간의 휴식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6시간 이상 연속 야간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근무 교대 시 추가 휴식시간이 부여된다.

베트남 내 초과근무 제한은 늘 베트남 진출 한국투자기업들 입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이슈다. 일부 관련 베트남 현지 노무법규를 미인지한 기업 중에서 초과근무 규정 위반으로 유관 베트남 노무당국으로부터 조사 및 페널티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으며, 특히 중대 위반 사례 적발 시 사업장 영업에 큰 차질로 귀결될 개연성이 있는 바, 베트남 진출 한국 제조업체는 사내규칙(internal regulation)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노동법규를 준수하여 노무당국 감사 및 신고, 고발에 상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



한눈에 보는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 수행 절차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지되었거나 지연되었던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가 최근 재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필자의 법인에도 최근 부동산/건설 프로젝트의 검토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종종 베트남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 절차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고, 이미 많은 부분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전체적인 베트남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 절차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행정 절차명	규제 대상	담당 기관	서류	처리 기간
1 부동산 투자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	관할 기관이 승인한 부동산을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입찰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및 투자자	입찰 담당 관할 기관	입찰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입찰법 12조 규정에 따름(평가 보고서 수령후, 계약자 선정 계획 승인을 위한 최대 시간은 영업일 5일 등 사안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2 투자 등록	입찰을 통해 선정된 부동산 사업을 운영할 투자자	기획투자부 (DPI) 외국투자 담당 부서) 또는 경제구역 관리 위원회 (Management Board of Economic Zone)	- 투자 등록증 신청서 - 프로젝트 제안서 - 투자자의 최근 2년 재정 상태 증명서 - 투자자의 설립 자격 증명 자료 - 관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투자정책결정문(Decision on Investment Policy; DIP) 발급 후 영업일 5일
3 기업 등록	입찰을 통해 선정된 부동산 사업을 운영할 투자자	기획투자부 (DPI) 기업 등록 사무소)	- 기업 설립 신청서 - 투자자 의결서 - 투자자의 설립 자격증명 자료 - 투자 등록증 - 관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영업일 3일
4 토지 회수 발표	정부에 의한 토지 회수지의 부동산 투자 개발 프로젝트	지방성의 자원 환경국 등 관할 자원 환경부(NRE)	- 토지 회수 서면 신청서 - 수립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명확한 일정	영업일 3일



5	기초/기본 설계에 대한 의견 수렴	일정 규모의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은 프로젝트 승인 전 기초설계에 대한 관할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기타 프로젝트: 투자자들은 필요하면 기초설계에 대한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방 성의 건설국(Department of Construction) 등 관할 기관	- 평가 신청서 - 기초 설계와 설명 - 기초 설계 단계의 건설 조사 보고서 - 기초설계 사전 승인 승인시험의 투자자 의사록, 건설 조사보고 허가서 - 프로젝트 설명서 - 지방성 건설부 지침서에 따른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 그룹: 영업일 10일 • B 그룹: 영업일 15일 • A 그룹: 영업일 20일
6	화재 안전 설계 평가	건설을 해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		소방당국	프로젝트에 따라 다름
7	상하수도와 전력 공급에 관한 정보 및 관련 협의	건설 투자 프로젝트		지방 성의 베트남 전력공사(EVN), 수도 공급업체 등 담당 기관	공급업자에 따라 다름
8	설계 평가	공적 투자 자금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 등 설계 평가를 해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		지방 성의 건설국(Department of Construction) 등 건설 담당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등급 이상의 건축물: 영업일 40일 • 기타 건축물: 영업일 30일
9	환경 보호에 대한 서약서 /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승인	환경 영향 평가와 승인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지방 성의 자원 환경부, 지방 성의 인민위원회, 현급 인민 위원회, 구급 인민위원회 등 자원환경부 관계 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보호 서약서: 영업일 5일 • 환경 영향 평가와 승인: 영업일 45일
10	토지 할당, 토지 임대와 용도 전환 결정	부동산 투자 개발 프로젝트		지방 성의 자원 환경국 등 자원환경부 관계 당국	해당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구체적인 서류와 요청사항이 다를 수 있어, 실제 관할 기관과의 확인 필요
11	토지 정리에 대한 보상계획의 발표와 수행	정부에 의해 회수될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 개발 프로젝트		토지 보상과 토지 정리 담당 기구, 지역구와 공동체 인민위원회	해당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구체적인 서류와 요청사항이 다를 수 있어, 실제 관할 기관과의 확인 필요
12	토지 임대계약 체결 / 재정 의무 이행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		지방 성의 자원 환경국 등 자원환경부 관계 당국, 세무 당국	해당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구체적인 서류와 요청사항이 다를 수 있어, 실제 관할 기관과의 확인 필요



13	토지 (지도) 대장과 토지 현장 확인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	지방 성의 자원 환경국 등 자원환경부 관계 당국		영업일 5일
14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	지방 성의 자원 환경국 등 자원환경부 관계 당국	해당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구체적인 서류와 요청사항이 다를 수 있어, 실제 관할 기관과의 확인 필요	영업일 7일
15	건설 시공 공지	건설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 소유주		
16	운영 전 최종 건설 평가 검사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	지방 성의 건설국(Depart- ment of Construction) 등 건설 담당 관할 기관	해당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구체적인 서류와 요청사항이 다를 수 있어, 실제 관할 기관과의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III, IV 등급 건축물: 영업일 15일 특별 등급, I, II 등급 건축물: 영업일 30일
17	프로젝트 시행의 평가와 확인, 프로젝트 운영의 촉진을 위한 환경 보호 조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투자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청 사항을 접수하는 관할 당국: 건설 담당 관할 기관 (예: 지방 성 의 건설국(Departmen- t of Construction)) 자원환경부 관계 당국 (예: 환경영향 평가 보 고서를 승인하는 기관 의 책임자) 	해당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구체적인 서류와 요청사항이 다를 수 있어, 실제 관할 기관과의 확인 필요	영업일 20일
18	운영 허가, 자격 증명서 발급	투자에 대한 조건이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	지방 성의 건설국(Depart- ment of Construction) 등의 관할 기관, 또는 회사 의 사업 운영 영역에 따라 다른 관련 부서	해당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구체적인 서류와 요청사항이 다를 수 있어, 실제 관할 기관과의 확인 필요	각 프로젝트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다름

한국과 달리 베트남의 토지는 베트남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국유재산이며,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사용권을 개인이나 법인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끔 국가유공자나 특수한 경우에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았는데, 베트남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계속 토지사용권을 갱신하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기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토지와 달리, 토지 위의 건물과 부속물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개인과 법인에는 토지사용권이 부여되며, 토지 위의 자산(예: 건물, 아파트, 주택, 나무 등)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여 성공적인 부동산/건설 프로젝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이제서야 시작된 베트남. 따라서 도움받을 길이 많지 않다. 개인 역량 & 네트워킹 능력을 함양하라. 외로운 창업가의 길이다.

IB컨설팅 대표 하만충 (변호사/미국 뉴욕 주)

raydooba12@gmail.com | +84 (0)975952206

필자는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고 있으며 M&A, 투자유치, 스타트업, 법률자문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정체됐으나 올해 들어 스타트업 창업이 봇물을 이루며 동남아 최고 스타트업 투자국으로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다. 필자가 현재 자문하는 베트남 오토바이 중개 스타트업 (한국인 오너)은 작년에 65억 원을 유치하고 또한 필자가 자문한 베트남 숙박중개 스타트업 (한국인 오너) 또한 현재까지 누적 5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필자가 현재 자문하는 부동산 중개 베트남 로컬 스타트업 또한 한국인 개인 투자자 ('daum' 창업자)로부터 Seed 투자를 받았다.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른 IT 분야 수요 증가, 다수의 IT 개발자와 디자이너 존재, 베트남 인구 중 청년의 비율이 높고 젊은 역동적인 사회 분위기,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며 디지털 콘텐츠 분야 또한 활성화되어 있는 베트남은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동남아 최고 스타트업 투자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원하는 한국 창업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수년 전 한국에서 이미 진행됐던 과정을 베트남에 적용하고 어떤 흐름을 갈지 예상할 수 있어 아이템을 잘 골라 베트남에서 niche market을 찾아 낼 수 있으므로 기회가 된다면 베트남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베트남은 우리나라만큼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아직은 척박한 환경이므로 일단 자신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네트워킹을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좋은 mentor, advisor,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 좋은 베트남 직원 등을 찾을 수 있는 네트워킹. 결국 자신의 능력과 네트워킹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베트남에서는 Venture Capital이 활발히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framework이 부재하다. 벤처캐피털은 스타트업에 자금과 자문 컨설팅 그리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내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베트남 국내에서 벤처캐피털을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법률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즉, “Innovative Startup Fund”라는 펀드를 통해 베트남 국내에서 벤처캐피털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만든 것이다. 베트남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작년부터 많은 수의 베트남 국내 투자자들이 Innovative Startup Fund 라이선스 신청을 하고 있다. 필자도 올해 초 싱가폴 기업과 합작으로 외국인 투자자 자격으로 Innovative Startup Fund 라이선스를 베트남 정부로부터 획득하고 베트남 로컬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법률은 “Innovative Startup Fund”의 경우 30명 이상으로부터 자금유치를 할 수 없고 스타트업 지분 51% 이상을 획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법률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사채(CB) 등등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털이 고려하는 투자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필자가 아는 대 다수의 베트남 스타트업은 하노이나 호치민에 설립한 본사를 싱가풀이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즉, 해외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기존 베트남 법인을 해당 해외법인의 자회사로 전환하는 플립(Flip)을 택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개인투자자, 엔젤 투자자로부터 Seed 투자 유치에 성공한 베트남 스타트업의 오너들조차 아예 처음부터 싱가풀이나 다른 나라에서 법인을 설립(지주회사 구조)하고 베트남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 베트남 창업가들은 법률적으로 베트남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법인이 투자유치에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법인 설립, 베트남 법인 지분 인수 등이 모두 허가사항이다. 즉, 베트남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투자등록증(IRC)과 사업자등록증 (ERC)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및 외국 투자자는 스타트업 지분 인수 시 투자등록증 (IRC)을 취득/수정해도 되지 않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베트남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통상적인 절차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투자등록증 발급 혹은 수정과정이 면제되었으므로 인허가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이 베트남 스타트업의 법률적 정의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는 시간이 투자허가서 발급/수정 시간만큼 걸리거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필자의 베트남 변호사 지인은 의견을 피력한다. 실제적으로 시간 축소의 간소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벤처캐피탈만큼 중요한 요소는 Exit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Seed를 받고 Series A, B, C에 이어 영광의 베트남 IPO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외국인이 설립한 스타트업의 경우 베트남 IPO 시장을 통한 Exit은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베트남 스타트업의 경우 M&A를 통한 스타트업 Exit이 좀 더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아직 M&A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베트남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경우 베트남이 아닌 해외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어느 국가에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하는지는 심사숙고하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베트남 정부도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이슈를 잘 알고 있다. 특히 “Innovative Startup Fund”의 30명 이상으로부터 자금유치를 할 수 없는 조항, 스타트업 지분 51% 이상을 획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상환전환우선주(RCPS) & 전환사채(CB) 금지 조항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현재 법률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한 상황이다. 좋은 결과물을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스타트업 창업을 원하는 한국인은 현상황에서는 베트남에서 도움 받을 길이 많지 않다. 베트남에서 좋은 아이템을 찾아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 역량이 반드시 필수적이고 이를 토대로 베트남에서 네트워킹 능력을 함양하는 길이 최선이다. 누구나 아는 진부한 얘기지만 정답이다. 그리고 이것은 외로운 창업가의 길이다. <끝>



노동 관련 베트남 주요현안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 이재국 고용노동관
jglee19@mofa.go.kr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약 9천여개로 추산된다. 세무이슈와 함께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가 인사노무 분야이다. 다만 국·관세 등 세무이슈는 진출로펌의 유료서비스나 코트라 등 유관기관의 상담·지원이 활발한데 비하여, 베트남 노동법을 포함한 인사노무 이슈는 상대적으로 우리기업들의 정보획득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관련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2019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노무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또는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고 있다. 최근 노동분야의 이슈는 크게 ①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따른 관련 노동법 규정, 특히 임금지급 문제, ②개정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이 최근(2.15) 시행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문제인데, 이 두가지 주요현안 이슈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자 한다.

1. 코로나 19와 노동법 규정, 대응방안

지난해 10월경 코로나 19와 관련된 베트남 노동법상의 급여지급 규정과 해석,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을 교민소식지나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질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특히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노동법에 근거하여 이를 보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1.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COVID-19 전염병 관련, 업무가 중단되는 동안의 근로자 급여지급 가이드(1064 / LDTBXH-QHLDTL, 2020.3.25)”

지난해 3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동 가이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급여지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우선, 개정노동법 제9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업이 중단된 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인지, 근로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지 검토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둘째, ①관할기관의 요구에 의해 회사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②관할기관의 요구에 따라 격리되어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 ③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사용자, 격리자 등으로 근무가 중단된 근로자는 노동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즉 14일 이하의 작업중단 시의 임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되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한다.



14일을 넘는 작업중단 시의 임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하여 정하되, 처음 14일간의 작업중단 시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14일 넘는 작업중단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론적으로는 무급 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여건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 노동법은 ‘14일’이라는 기준없이, 작업중단 시 전(全)기간동안의 임금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되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노동법은 ‘14일’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원부자재 수급, 전반적인 생산 축소 등 시장상황으로 업무를 충분히 배정할 수 없다면, 사용자가 노동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다른 직무로 배치 전환하되, 업무중단 기간의 장기화로 기업의 비용 지불능력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법 제30조에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의 이행을 정지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만약 기업들이 일자리를 축소해야 할 상황에까지 이른다면 노동법 제36조(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또는 제42조(정리해고)에 따라 근로자들을 조정(인원수)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정부는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관할기관의 요구 등으로 업무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14일에 대해서는 최소 최저임금을 지급하되, 14일을 넘는 경우의 임금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발주(오더) 취소, 전반적인 불황 등의 경우에는 ①근로자를 다른 직무로의 배치전환, ②근로계약의 이행정지, ③해고의 순으로 기업이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업현장에서는, 특히 섬유·봉제·신발 등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의 여파가 크고 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동집약업종의 경우,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최저임금 더 나아가 최소한의 임금 지급능력이 없어지거나, 기업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 하에서 노동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무급휴가를 선택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2. 베트남 노동법 제115조제3항에 따른 무급휴가의 가능성

베트남 노동법 제115조제3항은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서도 무급휴가의 조건,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법적 흡결 속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생존이 어려운 기업이 무급휴가를 활용할 수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우리대사관의 구두·서면질의에 대해 모두 무급휴가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답변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5월경 베트남 북부 하남성에서 무급휴가를 선택한 봉제기업이 노동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특히 하남성 노동보훈사회국은 동 기업이 작업 중단을 선택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에 무급휴가를 실시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동 기업은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서면답변을 하남성에 제출함으로써 제재를 면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 FLC 그룹의 뱀부항공의 경우에도 지난해 3개월의 무급휴가를 실시한 바 있다.



1.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고용노동관의 입장에서, 우선 현장의 구인난이 심각한 베트남의 고용상황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급적 고용유지 입장에서 기업이 판단하길 권한다.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거쳐 최소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기업여건이 괜찮다면 근로자의 이직감소, 생산성 유지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급적 현재와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유하고 싶다.

다만, 경영여건이 상당히 어려워 기업의 생존과 존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에 무급휴가를 불가피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무급휴가를 활용하더라도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휴가일수 만큼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더 나아가 회사의 경영여건이 허락한다면 최저임금은 주지 못하더라도 교통비·위로비·보상비 등의 명목 하에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법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도 연차휴가의 활용도 가능하다고 서면으로 답변한 바 있다.

또한 회사가 무급휴가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실행하기보다는 향후 발주(오더)량과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여, 미리 근로자와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등 상당기간동안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노동법 제36조(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및 제42조(정리해고)에 따른 해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노동법상 두 경우 모두 불가피성 등에 대한 기업의 증빙(특히 노동감사에 대비)이 있어야하고 노사관계의 급격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노동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양 당사자들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도 근로계약의 종료는 양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가 노동법에 따라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참고: 관련 노동법 조항>

제29조: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로의 배치 전환

1. 천재지변, 화재, 위험한 전염병,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예방·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 전기·용수의 사고, 생산 및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로 배치할 수 있으나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간 60 영업일이 넘게 근로자를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로 배치하는 것은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사용자는 내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지만, 생산·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용자는 노동계약과 다른 직무로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1조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로 배치 전환할 경우 사용자는 적어도 3영업일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일시적인 배치전환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배치 전환하는 직무는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성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노동계약과 다른 업무에 일시적으로 배치되는 근로자는 새로운 직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는다. 새로운 직무의 임금이 이전 업무의 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는 30영업일 내에서 이전 직무의 원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직무의 임금은 이전 직무의 임금 대비 적어도 85%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4. 근로자가 노동계약과 다른 업무에 일시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연간 60영업일이 초과하면 반드시 이를 중단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동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중단 시의 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제30조: 근로계약 이행의 일시 정지

1. 다음의 경우 노동계약의 이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h)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제36조 :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권

1.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c) 천재지변, 화재, 위험한 질병, 외침,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른 생산·사업의 이전 또는 축소에 의하여 사용자가 모든 수단을 다하여 복구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생산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제44조: 구조, 기술 또는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한 사용자의 의무

3. 다수의 근로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 또는 기술의 변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44조에 따라 노동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새로운 직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선 재훈련하여야 한다.
4.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실업의 위기에 처하거나 해고되어야만 하는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46조에 따라 노동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어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동법 제47조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동조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가 해고될 경우, 근로자가 구성원인 단위 근로자 대표단체를 가지는 사업장에서는 단위 근로자집단을 대표하는 조직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고, 성급 위민위원회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9조: 작업 중단 시 임금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는다.

1.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에 따른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2.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작업이 중단된 동일 사업장 대 다른 근로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임금을 지급받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3.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전기·수도 사고 또는 자연재해·화재·전염병·적에 의한 파괴·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른 사업장 이전 또는 경제적 사유로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작업 중단 시의 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a) 14일 이하의 작업중단의 경우 작업중단시 임금은 합의에 따르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 (b) 14일을 넘는 작업중단의 경우 작업중단시 임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되, 처음 14일간의 작업중단 시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13조: 연차휴가

1. 한 사용자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온전히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 (a) 통상적인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2영업일
 - (b) 미성년 또는 장애인근로자, 과중·유해·위험한 직업·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4영업일
 - (c) 특별하게 과중·유해·위험한 직업·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6영업일
2. 한 사용자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온전히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무한 월 수에 비례하는 일수의 연차 휴가를 가진다.
3. 퇴직·실직으로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4.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차휴가 일정을 정할 책임이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여러 차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최대 3년분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5조: 경조휴가 및 무급휴가

3. 동조 제 1항과 제 2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2. 개정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시행에 따른 노동허가 이슈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문제는 근로자 개인의 인권·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경쟁력 및 한-베 동반성장과 관련된 중대 이슈다. 베트남의 개정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시행령 (152/2020/ ND-CP)”이 ‘21.2.15 시행되고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요건 등이 강화되면서, 우리기업 및 교민의 현장애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하여 2013.12월 체결된 한-베 전문가 인정 MOU¹ 의 근거규정²이 삭제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동 MOU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고, '전문가' 인정요건이 강화(대학+경력3년, 자격증+경력5년)되어 경력없는 청년 등 한국근로자의 베트남취업이 곤란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 다수지방에서 '전문가' 경력은 해외 근무경력만 포함되고 베트남에서의 근무경력은 제외된다는 우리기업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우리대사관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베트남정부(노동보훈사회부)에 면담과 서면을 통해 각각 질의하였으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베트남정부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노동허가 문제는 긴급한 현안이슈인만큼 이하에서는 일단 베트남정부의 면담결과(구두답변)을 안내 하도록 하겠다. 향후 베트남정부의 공식(서면) 답변을 받으면 대사관 및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2.1. 전문가인정서 효력 거부

<질문> 한-베 전문가인정 MOU('13.12 체결)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문가인정서의 효력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한국근로자의 해외취업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우리대사관은 베 정부에 MOU 근거규정³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함

- (답변) 베 정부의 우수 외국인력 채용방침에 따른 것으로 한-베 전문가인정서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양해바람
- * (노무관 추가해설) 우리대사관은 베 정부 안내에 따라, K-Move 스쿨 등 정부운영 해외취업과정에 대한 경력인정 여부 및 근무경력확인서 발급 등을 우리정부와 협의 중(향후 별도 안내 예정)

2.2. 노동허가 관련 제152호 시행령 개정요청

<질문> 최근 개정시행령(152/2020/ND-CP)은 전문가 인정조건 강화(학사학위+경력3년 또는 자격증+경력5년), 관련 대학전공 및 관련 경력 해석 등 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하므로, 투자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차원에서 동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함

- (답변) 개정시행령이 각부처·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받아 컨센서스를 형성하여 개정되었고, 각 기업의 불편함과 애로는 시행령이 최근(2.15) 시행됨에 따른 적응과정으로 생각함. 특히 베 정부는 고학력 또는 자격증을 가진 우수 외국인력의 고용을 희망함. 따라서 당분간 제152호 시행령의 재개정은 곤란하나 향후 FDI기업 등의 의견을 받아 재개정을 검토하겠음
- * (노무관 추가해설) 우리대사관은 각국 대사관 및 코참, 코트라, JCCI 등 각국 유관기관과 함께 동 시행령의 재개정을 베 정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음

- 1) 동 MOU에 따라 학력·경력이 없어도 ①한국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②K-Move 스쿨 수료자, ③공공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자의 경우, 베트남 정부는 '전문가'로 인정하여 노동허가를 발급
- 2) (구)시행령(11/2016/ND-CP) 제3조제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문서가 있는 자
- 3) (개정)시행령(152/2020/ND-CP) 3조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에 의해 결정된 특별한 경우



2.3. 전문가 인정요건 강화 관련

<질문> 전문가 인정의 자격조건 강화(학사학위+경력3년, 또는 자격증+경력5년)로 인한 조건 충족의 어려움

- (답변) '전문가'로만 노동허가를 받으려는 관행이 문제. 학력/경력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각 요건충족 시 '전문가'가 아닌 '관리자', '운영감독자' 또는 '기술자'로 노동허가 신청 가능

* (노무관 추가해설) 관리자: 기업을 관리하는 자 또는 기관·조직의 대표자·부대표자로 별도 인정요건 없음운영감독자: 기관·기업 등의 직속 부서(과, 팀 등)의 운영자로 별도 인정요건 없음기술자: 훈련1년+경력3년 또는 경력5년

2.4. 베트남 내 경력 불인정

<질문> 전문가 경력은 해외 근무경력만 포함되고 베트남 내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 발생(하노이, 호치민, 하남 등). 그로 인해 실제로 베트남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가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 (답변) 베 근무경력 제외는 오해임. 시행령 제9조제4항b호에 따라 '전문가는, "베트남 근무경력기간에 대해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확인" 필요

* (노무관 추가해설) 우리대사관은 우리근로자의 베트남 근무경력에 대한 인증방안을 우리정부와 협의 중이며, 향후 별도 안내 예정

2.5. 전공 등 불일치

<질문>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력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전공과 다르다고 하여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대학전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현장혼란이 발생. 예컨대, 인사담당자가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한 경우, 홍보를 전공한 경우 등은 관련 대학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답변) 관련 학위나 관련 경력은 폭넓게 해석·인정될 수 있음. 예컨대, 베트남어를 전공한 자가 회계업무 전문가로 노동허가를 신청한 경우, 과거 대학에서 회계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했음을 증명하면 관련 학위로 인정되고,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로 예정된 전문가가 과거 업무명칭(예컨대 행정담당, 홍보담당 등)과 무관하게 과거 업무 중 회계와 관련된 업무가 있음을 증빙하는 경우 관련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한편, 만약 학위증에 전공이 없거나 단지 문학사, 어학사 등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성적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음

2.6. 한국의 대학졸업증명서 효력 부인

<질문> 한국에서는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과거에는 베 지방정부도 대학졸업증명서를 대학학위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일부지방정부는 대학졸업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함

- (답변)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이 있으며, 문제가 있는 지방성을 알려주면 직접0 슈를 해결하겠음

* (노무관 추가해설) 우리정부(교육부)도 한국의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공식의견을 우리대사관에 보내왔으며, 우리대사관은 베 노동보훈사회부에 동 내용을 베 지방정부에 안내·지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황



2.7. 대표사무소와 외국인기업연합회 노동허가 발급 소재지 변경 요청

<질문> 호치민 등 남부지역 주재 외국인기업연합회와 대표사무소들은 현재 노동보훈사회부(하노이 소재)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함. 이에 해당 시·성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함

- (답변) 현재 온라인으로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남부지역 주재 외국기업연합회 등은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8. 행정 절차의 불명확성 등

<질문> 담당자가 노동허가서 발급에 관한 절차(서류 등)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없고 담당자에 따라 안내가 다름으로 인한 혼선유발 및 발급 소요 기간이 지연됨. 또한 현재 다수 지방성에서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함

- (답변) 개정시행령이 최근('21.2.15)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초기 혼란으로 생각함. 지방정부 해석이 중앙정부(노동보훈사회부)와 다를 경우, 이러한 이슈는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정부를 지도하겠음. 또한 코로나19로 잠정연기된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를 통해 향후 행정절차 등 한국기업의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안내하겠음

* (노무관 추가해설)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 한-베 공동으로, 개정노동법 및 노동허가 관련 제152호 시행령에 대한 우리기업의 주요질의 및 건의를 중심으로, 당초 5월중순 베트남 북부(하노이, 하이퐁), 남부(호치민) 개최예정이었으나, 베트남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6월중순 이후로 잠정연기

고용노동관이 재작년 2월 부임한 이후, 우리대사관은 코참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베트남 순회설명회 등 “찾아가는 노무특강”을 현재(21.5월)까지 총 80여회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베트남 내 통행금지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4회가 넘는다. 특히, 꽝남·응에안·빈푹·ණ터 등 베트남의 대다수 지역에서 최초의 설명회(간담회)면서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아, 매우 보람있는 활동이었다. 또한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된 우리기업의 애로나 정책건의는 베트남 정부(노동보훈사회부)에 그대로 전달되어 일부 의견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법 개정에 반영되었다.

금년부터 전면개정된 노동법이 시행되고 우리기업의 인사노무 애로 해결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우리대사관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즉시, 베트남 전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베트남 노무 특강” 또는 “찾아가는 베트남 (기업)문화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특강은 무료이므로, 지역(코참, 한인회 등), 공단, 대기업그룹 및 협력사, 금융·건설·IT 등 업종, 법인장모임 및 사업주단체, 개별기업 등 특강을 희망하는 경우, 부담없이 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84-24-3831-5111)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베트남 노동법 및 인사노무 관련 주요사항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정책-경제관련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끝>



베트남 남부 유망 투자지역 안내 - 끼엔장성

▣ 끼엔장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6,348㎢ 인구: 1.7백만명('20년) 도시거주 비율: 28.3%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끼엔장성은 베트남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메콩강 삼각주의 주요 경제지역 4개 성 중 하나임 성의 인접 행정 경계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쪽 및 동북쪽으로 안장(An Giang)성, 꺼터(Can Tho)시, 하우장(Hau Giang)성이 있음 - 남쪽에는 박리에우(Bac Lieu)성, 까마우(Ca Mau)성이 있음 - 서쪽 및 남서쪽으로 해안선이 200km가 넘는 태국만이 있으며, 크고 작은 145개의 섬이 있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해역과 접해있음 - 북쪽은 캄보디아와 접해있으며 국경길이는 56.8km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노이시로부터의 거리: 1,967km / 다낭시에서의 거리: 1,100km / 호치민시로부터의 거리: 250km / 꺼터시에서의 거리: 120km 80번 국도, 61번 국도, 63번 국도, 락소이-로떼(Rach Soi-Lo Te) 고속도로로 연결 끼엔장 성의 모든 마을로 연결되는 100% 아스팔트 도로가 있음 락자(Rach Gia)공항 및 푸撅(Phu Quoc) 국제공항이 있음 락자 내륙수로 여객항(락자시), 즈엉동(Duong Dong) 국제 여객항(푸撅), 안터이(An Thoi) 화물항, 빙덤(Vinh Dam) 화물항(푸撅), 혼총(Hon Chong) 화물항(끼엔르엉) 등
GRDP 성장률 / 1인당 GDP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성장률: 3.05% 성 1인당 GDP: US 2,418 달러/년, 전년대비 7.23% 성장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수출액: US7억 달러 / 총 수입액: US1.2억 달러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5.81%), 서비스업(1.92%), 농수산업(3.43%)
산업구조('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건설업: 20.65%, 서비스업: 42.67%, 농수산업: 32.74%
노무여건('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55% 노동가능연령 인구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67% 직업교육 이수자중 자격증 보유비율: 50%
최저임금('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락자(Rach Gia)시, 하띠엔(Ha Tien)시, 푸撅(Phu Quoc)현: VND 3,920,000 = US 170 달러(2급지) 끼엔르엉(Kien Luong), 끼엔하이(Kien Hai), 쩌우타잉(Chau Thanh)현: VND 3,430,000 = US 149 달러(3급지) 기타: VND 3,070,000 = US 134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0.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끼엔장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62개 프로젝트 48억 달러 (한국) 9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51.12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끼엔장성에 투자한 국가(19개) 중 투자 4위(1위 일본, 2위 태국, 3위 스위스)



□ 투자환경

○ 접근성 및 물류인프라

- (수로)** 끼엔장에는 200km의 해안선이 있고, 끼엔르엉-호치민시 노선, 락자-하띠엔-푸꿔 노선 및 락자-끼엔하이 노선은 중요한 수로로 상품 거래가 편리하고, 생태관광지 및 과수원이 이어지는 관광 명소중에 하나임.
- (항만)** 푸꿔(Phu Quoc)의 드엉동(Duong Dong)항구, 안터이(An Thoi)항구, 빙담(Vinh Dam)항구, 바이봉(Bai Vong)항구, 끼엔르엉(Kien Luong)의 혼총(Hon Chong)항구, 끼엔하이(Kien Hai)의 남주(Nam Du)항구, 락자시(Rach Gia)의 Rach Gia항구 등은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항구들임.
- (항공)** Rach Gia 공항에는 하노이와 호치민 두 대도시를 연결하는 2개의 국내노선이 있음. 푸꿔 국제공항은 2012년 12월에 개항하여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러시아, 중국, 싱가폴, 캄보디아, 태국, 이탈리아, 영국 등 국제노선이 개통되었으며, 피크 시간대에는 20대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고, 매년 27,600 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음.





○ 관광 및 천연 자원

끼엔장은 위대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메콩 삼각주의 주요 경제구역에 위치한 4개성 중 하나이며, 다양한 지형, 긴 해안선이 있는 강과 산 및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섬들이 있음.



푸꿔섬



우민트엉 국립 공원

❖ 관광

끼엔장성은 매력적인 산과 낭만적인 해변들이 있으며, 아름다운 평야, 숲, 산,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4개의 주요 관광지역에 명승지들이 많이 모여 있음

(1) 푸꿔: 푸른 해변과 로맨틱하고 꿈같은 바이사오(Bai Sao), 바이자이(Bai Dai), 바이옹랑(Bai Ong Lang), 바이붕바우(Bai Vung Bau) 해변들과 놀이동산 그리고 천연자연환경인 수어이차잉(Suoi Tranh), 수어이다반(Suoi Da Ban), 푸꿔 국가공원부터 푸꿔 감옥, 호꿔(Ho Quoc) 절, 응웬쭝쭉(Nguyen Trung Truc)을 송배하는 사원과 같은 특색있는 일본주의적이며 영적인 가치를 지닌 장소들로 지상낙원 휴양지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음.

(2) 락자(Rach Gia)-혼닷(Hon Dat)-끼엔하이(Kien Hai): 락자는 끼엔장의 심장부이며, 해안도시의 활기찬과 함께 변화하고 현대적인 해변들과 지방 박물관의 고전적인 형태, 바오 파고다, 런 파고다, 꾸언 데 파고다, 랑 깥 파고다들의 장엄함으로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임.

(3) 하띠엔-끼엔르엉 및 주변 지역: 바루어(Ba Lua) 군도, 하이딱(Hai Tac) 군도 및 혼푸뚜(Hon Phu Tu)는 많은 관광객들을 경탄케하며, 바다와 섬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끼엔르엉 지역의 신비하고 독특한 동굴들과 국경지대의 "하띠엔의 10대 경치"는 탐험하는 과정에서 많은 흥미로움을 제공하는 여정이 되고 있음.

(4) 우민트엉 및 주변 지역: 베트남의 8번째이고 세계에서는 2,228번째인 람사르 습지는 거대한 멜라루카 숲과 수천 개의 동식물이 있는 UNESCO에 등재된 귀중한 습지임. 또한, 여행자들은 우민트엉 혁명기지 유적지를 방문하여 찬란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민과 군인들의 영웅적인 혁명적 역사 유적지들을 찾아볼 수 있음.



❖ 천연 자원

- 1) 토지 자원: 끼엔장성의 총 토지 면적은 634,000ha 이상이며, 그중 농지는 570,000ha로 89.9%를 차지함(벼 재배면적은 395,000ha로 62.34%를 차지하며 수산 양식용 토지 면적은 36,000ha로 5.74%를 차지함). 비 농업용 토지는 61,000ha로 9.73%를 차지함. 미사용 토지는 3,374ha로 0.37%를 차지하며 쌀, 사탕수수, 파인애플, 후추 등의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 2) 산림 자원: 끼엔장성은 메콩 삼각주에서 가장 큰 산림을 가진 2개 성 중 하나이며, 산림 면적은 71,000ha 이상이며, 그중 재배산림은 6,067ha 이상, 보호산림은 26,000ha 이상, 특수용도 산림은 약 38,000ha임. 끼엔장성의 산림 자원은 산과 섬의 산림 생태계, 해안 맹그로브 생태계 및 습지 생태계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고 풍부함. 산림 초목이 푸ჭ, 하띠엔, 우민트엉 등 유명한 관광지들에 특색있는 자연경관을 만들어냈으며, 140 종의 희귀 산림 동물을 포함한 희귀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음. 특히, 2006년부터 우민트엉 국립 공원, 푸ჭ 국립 공원 및 혼총 경관 보호 구역은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전지역과 전형적인 산림 생태계로 인정 받고 있음. 푸ჭ, 끼엔하이(Kien Hai), 혼닷(Hon Dat), 끼엔르엉, 안비엔(An Bien), 안민(An Minh), 빈투언(Vinh Thuan) 및 하띠엔시, 락자시에 걸쳐 위치한 총 산림 면적이 110만ha 이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생물권 보전 구역으로 간주됨.
- 3) 수생 자원: 끼엔장 해역은 다른 성 및 도시에 비해 해양 경제발전에 유리한 잠재력이 풍부한 어장으로 평가됨. 200km가 넘는 해안선 및 63,290km²의 어장에는 새우, 생선, 오징어외에도 해삼, 피조개, 거북이, 전복, 진주조개와 식품과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조류 등 귀중한 특수산품이 많이 있음. 성 전체에는 수출용 해산물 가공목적 및 근해 어업용으로 총 2백만 마력의 어선들이 있으며, 그 생산량은 연간 50만톤 이상임. 새우 양식 생산량은 73,390톤(새우양식 판매량은 15,000톤 이상)이며 장타잉(Giang Thanh), 끼엔르엉, 혼닷, 안민, 안비엔, 빈투언 및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수산물 가공원료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4) 광물 자원: 끼엔장성은 메콩 삼각주에서 광물 자원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석회석 매장량은 약 440백만톤(남부에서 가장 큼), 채굴 매장량은 245백만톤이고, 건설 대리석 매장량은 120백만톤, 점토 매장량은 42백만톤, 토탄 매장량은 150백만톤임. 광물 자원은 시멘트 광산원료, 건설자재, 비료등의 생산 광물 원료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락자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모든 현, 섬 및 하피엔시

❖ 법인세

투자지역, 분야	세율	감면, 면제 기간	법적 근거
의결서 218/2013/ND-CP에 첨부된 부록에 명시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경제구역, 하이테크 구역에서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15년 간 10%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서 218/2013/ND-CP(제 15.1조, 제 16.1조) 의결서 12/2015/ND-CP
다음 분야에서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첨단 기술법의 규정에 따라 우선 순위 목록에 하이테크 응용 등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환경 보호 분야에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실행 시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의결서 218/2013/ND-CP에 첨부된 부록에 명시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산업단지, 수출 가공 구역에서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10년 간 17%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서 218/2013/ND-CP (제 15.3조, 제 16.3조) 의결서 12/2015/ND-CP (제 1.14조)
다음 분야에서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고급 철강 생산, 에너지 절약 제품 제조, 농업, 임업, 어업 및 소금 생산을 위한 기계 및 장비 제조, 가축, 가금류 및 수생 동물을 위한 사료 생산 및 정제, 전통산업 개발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농업 및 어업 부문 재배, 축산 및 가공	10년 간 15%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 토지 및 수면 임대료

투자지역, 분야	감면, 면제 기간	법적 근거
특별 투자 우대 분야	토지 및 수면 임대료 면제, 전체 임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서 31/2021/ND-CP(부록 II)
공통(개량 건설 및 생산/사업장 확장은 제외)	기본 건설 중 토지 및 수면 임대 면제(최대 3년), 그 후에 건설 중 3~15년 면제(투자 분야/지역에 따라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서 35/2017/ND-CP(제 8.6조)



❖ 수입세

- 특정 프로젝트에는 고정자산 투자용 설비, 기계 수입 시 수입세 면제
-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혹은 투자 우대 분야 중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는 화물 수입 시 5년 간 수입 면제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20년말까지 끼엔장성내에 유효한 외국인 투자는 총 62개의 FDI 프로젝트에 걸쳐, 총 48억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 있으며, 19개의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있음(한국, 미국, 스위스, 말레이시아, 호주, 스웨덴, 중국, 태국,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일본, 체코, 프랑스, 슬로바키아, 러시아, 케이맨 및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주요 투자 분야는 관광, 농업, 제조 및 가공, 석유 및 가스 운송, 무역 및 서비스 등 임

○ 한국계 투자

2020년말까지 한국기업의 유효한 투자는 총 9개 프로젝트에 걸쳐 51.12백만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 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 신발 및 가죽 가공, 컨설팅, 건설, 관광 및 레스토랑 등 임.

○ 끼엔장성 내 10대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D)
1	블록B 가스 파이프 라인	(블록B) 오몬에서 끼엔장 및 까마우에 있는 전력 센터로 가스 파이프 라인 공급	베트남, 케이맨 제도, 일본	1,277,771,043
2	훈쭝 시멘트 공장	• 가공 산업 • 도매 및 소매	베트남, 태국	656,000,000
3	시멘트 생산 공장	• 가공 산업 • 도매 및 소매	베트남, 태국	441,000,000
4	바이사오(Bai Sao) 관광 단지	여행사 및 지원 서비스	베트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114,285,714
5	강저(Ganh Gio) 보건 및 관광 지역	• 숙박 및 음식 공급 서비스 • 행정 활동 및 지원 서비스	베트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46,000,000
6	수출용 운동화 생산 및 가공 공장 (Hwaseung Vina Co. Ltd)	운동화 및 신발 부품 생산 및 가공	한국	33,000,000
7	푸ჭ 첨단 양식장 정원	• 농림수산업(양식) • 숙박 및 음식 공급 서비스	홍콩	32,000,000



8	푸ჭ 파라다이스 리조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 및 음식 공급 서비스 기타 서비스 행정 활동 및 지원 서비스 	호주	24,592,391
9	관광 전문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및 훈련 숙박 및 음식 공급 서비스 기타 서비스 행정 활동 및 지원 서비스 	호주	17,059,859
10	훈쭝 - 끼엔르엉 폐열 회수 발 전기 시스템	전기 생산 및 분배	베트남, 스위스	16,295,000

□ 공단 현황

○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면적(ha)	주요정보
1	타인록 (Thanh Loc)	25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차우타인(Chau Thanh)현 타인록(Thanh Loc)마을에 위치. 락자시에서 6km 떨어져 있으며, 캄보디아 및 태국과 연결하는 남해안 회랑에 위치함. 투자 유치 분야: 제조, 농수산품 저장, 식품 제조 및 가공, 약품 제조, 의류 및 신발 생산, 전자 제품, 광학 제품, 전기장비 등
2	투안옌 (Thuan Yen)	133.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하피엔시 투언옌(Thuan Yen) 마을에 위치. 하피엔시에서 6km, 락자시에서 80km 떨어져 있으며, 80번 국도 및 남해안 회랑을 연결하는 N1 국도에 위치함. 투자 유치 분야: 식품 가공, 음료수 생산, 의류 및 가죽 신발 생산, 전기 제품, 광학 제품, 목제품 제조 등
3	쎄오로 (Xeo Ro)	31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안비엔(An Bien)현 흥옌(Hung Yen)마을에 위치. 안비엔현 중심에서 7km, 락자시에서 22km 떨어져 있으며, 61번 국도, 80번 국도를 연결하는 63번 국도에 위치하며 까이런(Cai Lon)강에 인접해 있음. 투자 유치 분야: 공단 인프라 개발 및 건설, 농수산 가공, 식품 가공, 건축 자재 생산
4	딱꺼우 (Tac Cau)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차우타인(Chau Thanh)현 빈호아푸(Vinh Hoa Phu)마을에 위치. 차우타인현에서 6km, 락자시에서 18km 떨어져 있으며, 61번 국도, 80번 국도를 연결하는 63번 국도에 위치하며 까이베(Cai Be)강에 인접해 있음. 투자 유치 분야: 공단 인프라 개발 및 건설
5	끼엔르엉2 (Kien Luong II)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끼엔르엉(Kien Luong)현 빈지(Binh Tri)마을에 위치. 투자 유치 분야: 공단 인프라 개발 및 건설



□ 투자 유망분야

- 제조업
- 농수산 가공
- 가죽 신발 생산
-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투자 및 사업
- 재생에너지
- 관광

□ 끼엔장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투자, 무역 및 관광 진흥센터	Ms. Nguyen Duy Linh Thao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Tel: +84 918 077 466Email: ndlthao@yahoo.comWebsite: kitra.com.vn
공단관리위원회	Mr. Nguyen Kim Lien (부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Tel: +84 297 394 2791/392 8846Email: bqlkkt@kiengiang.gov.vn.Website: bqlkkt.kiengiang.gov.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1. 4.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4. 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049	71,578	120	249	1,484
일본	4,690	62,911	54	1,796	2,514
싱가포르	2,681	61,462	56	4,414	4,846
대만	2,807	33,861	20	76	175
홍콩	1,970	26,693	31	775	867
버진아일랜드(영)	870	22,191	8	79	146
중국	3,192	19,629	61	576	1,082
말레이시아	647	12,947	3	9	21
태국	611	12,730	4	54	164
네덜란드	374	10,337	6	86	136
미국	1,093	9,572	15	149	181
전체 합계	33,294	393,325	451	8,456	12,251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2021. 4.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4.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280	231,168	175	2,408
2	부동산경영	953	60,925	17	579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63	33,562	13	4,991
4	호텔, 외식서비스	893	12,522	4	0
5	건설	1,756	10,682	8	5
6	도소매, 유지보수	5,296	8,805	124	285
7	물류운수	884	5,499	14	125
8	채광	108	4,898	-	-
9	교육, 양성	592	4,420	8	7
10	정보통신	2,355	4,010	30	4
11	농, 임, 수산	503	3,683	1	8
12	예술 오락	137	3,391	-	-
13	기술과학전문	3,583	3,835	49	42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1	2,897	1	1
15	의료와 사회복지	153	2,000	-	-
16	행정, 지원 서비스	497	977	7	1
17	기타서비스	144	848	-	-
18	금융, 은행, 보험	78	784	-	-
19	기타산업	-	-	-	-
합계		33,463	394,917	451	8,456
					12,251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8	2019	2020	2021.4
수출	2,447.20	2,634.50	2,814.70	1,039.0
수입	2,375.10	2,535.00	2,624.00	1,026.0
무역수지	72.1	99.5	191	13.0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4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0,003	51,827	50,880	18,371
섬유/직물제품	30,447	32,571	29,478	9,506
전기전자제품/부품	29,446	35,591	44,668	15,853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528	18,304	27,042	12,001
신발류	16,297	18,299	16,551	6,392
수산물	8,831	8,572	8,384	2,386
목제품	8,855	10,526	12,323	4,988
수송수단 및 부품	7,985	8,500	9,058	3,453
철강제품	4,558	4,160	3,035	2,674
채소	3,822	3,764	3,259	1,347
기타	67,951	71,337	76,793	26,930
합계	243,483	264,189	281,471	103,901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4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501	51,550	63,973	22,047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15	36,640	37,353	14,83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010	14,666	16,565	6,012
의류(원단)	12,914	13,329	11,802	4,231
철강제품	9,896	9,485	4,526	3,732
플라스틱 원료	9,097	9,012	8,323	3,805
유류제품	7,614	1,047	1,056	395
기타 금속	7,317	6,407	6,080	2,822
플라스틱 제품	5,906	6,526	7,238	2,567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5,741	5,886	5,316	2,080
기타	86,801	98,96	100,175	40,081
합계	236,687	253,070	262,407	102,607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4
1	미국	41,608	47,526	61,347	77,077	29,932
2	중국	35,463	41,268	41,414	48,905	16,293
3	한국	14,823	18,205	19,720	19,107	7,060
4	일본	16,841	18,851	20,413	19,284	6,608
5	홍콩	7,583	7,955	7,156	10,437	3,736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2,631
7	독일	6,364	6,869	6,555	6,644	2,341
8	인도	3,756	6,542	6,674	5,235	2,173
9	태국	4,786	5,494	5,272	4,917	1,959
10	영국	5,424	5,776	5,758	4,955	1,887
	기타	77,115	79,161	82,999	79,095	30,321
	합계	213,770	244,723	264,189	282,655	104,941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4
1	중국	58,229	65,438	75,452	84,187	33,927
2	한국	46,734	47,497	46,935	46,895	16,644
3	일본	16,592	19,011	19,526	20,341	7,078
4	대만	12,707	13,228	15,173	16,701	6,702
5	미국	9,203	12,753	14,365	13,713	5,029
6	태국	10,495	12,023	11,656	10,968	4,187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2,873
8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2,293
9	싱가포르	5,301	4,524	4,091	3,670	2,206
10	인도	3,940	4,147	4,538	4,435	1,431
	기타	38,395	46,523	48,341	49,833	20,940
	합계	211,096	237,512	253,071	262,700	103,31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4
수 출	47,749(46.3)	48,629(1.8)	48,178(-0.9)	48,543(0.8)	17,094(16.1)
수 입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7,973(17.0)
무역수지	31,573	28,997	27,107	27,964	9,120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	2021.4
반도체	9,235(101.9)	10,939(18.5)	10,730(-1.9)	11,501(7.2)	3,981(6.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367(193.0)	8,909(20.9)	7,970(-10.5)	9,552(19.9)	3,041(34.7)
무선통신기기	3,286(-36.7)	2,632(-19.9)	2,933(11.4)	3,467(18.2)	1,081(11.0)
기구부품	2,612(57.7)	2,332(-10.8)	2,230(-4.4)	2,250(0.9)	719(3.8)
석유제품	1,978(81.0)	1,980(-0.4)	2,194(11.0)	1,195(-45.6)	415(23.4)
합성수지	1,442(19.8)	1,659(15.1)	1,624(-2.1)	1,615(-0.6)	719(40.7)
플라스틱 제품	1,152(54.9)	1,205(4.6)	1,210(0.4)	1,115(-7.9)	354(-4.6)
편직물	1,118(3.8)	1,106(-1.0)	996(-10.0)	851(-14.6)	300(13.9)
철강판	985(20.1)	1,049(6.5)	1,158(10.4)	1,052(-9.1)	390(10.2)
광학기기	794(81.7)	944(18.9)	946(0.2)	947(0.1)	273(-9.9)
기 타	18,808	15,874	16,187	14,998	2,214
합 계	47,749(46.3)	48,629	48,178(-0.9)	48,543(0.8)	17,094(16.1)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	2021.4
무선통신기기	3,964(26.0)	4,835(21.4)	5,691(17.6)	4,980(-12.5)	1,821(3.6)
의류	2,874(17.4)	3,570(24.2)	3,646(2.1)	3,146(-13.7)	1,125(10.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04(976.6)	1,137(88.3)	1,197(5.2)	1,027(87.1)	241(-31.1)
신변잡화	797(24.2)	980(23.1)	1,053(7.4)	1,029(-2.2)	427(10.0)
목재류	511(19.4)	793(55.1)	657(-17.1)	632(-3.9)	246(17.8)
컴퓨터	560(1.4)	534(-4.6)	679(25.9)	1,270(87.1)	764(125.9)
기구부품	496(89.9)	445(-10.4)	512(15.1)	481(-5.9)	182(22.3)
산업용 전기기기	317(10.3)	416(31.1)	479(14.8)	574(20.0)	240(38.5)
반도체	374(203.7)	396(5.8)	471(19.1)	561(18.9)	245(32.7)
영상기기	400(17.7)	329(25.6)	356(-2.0)	406(14.0)	177(22.3)
기 타	5,279	6,197	6,330	6,473	979
합 계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7,973(17.0)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0~2021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0년(연간)	%	△5.4	△9.5	△5.6	△2.1	2.9
	2021년 1Q	%	0.2	N/A	△0.5	△0.7	4.48
	2021년 2Q	%	N/A	N/A	N/A	N/A	N/A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0년(연간)	-	N/A	N/A	109.8	147.1
		2021년 3월	-	126.6	△21.1%	120.1	N/A
		2021년 4월	-	N/A	△46.5%	N/A	24.1%
	구매관리지수 (PMI)	2020년(연간)	-	N/A	N/A	102.4	44.7
		2021년 3월	-	50.8	52.2	109.6	53.2
		2021년 4월	-	50.9	49.0	N/A	54.6
소비	소비지출지수	2020년(연간)	-	N/A	N/A	79.5	93.6
		2021년 3월	-	101.2	N/A	98.9	93.4
		2021년 4월	-	101.1	N/A	98.9	101.5
	소매판매	2020년(연간)	-	N/A	N/A	131.0	197.5
		2021년 3월	-	90.8	1.8%	138.9	187.9
		2021년 4월	-	N/A	N/A	N/A	209.3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0년(연간)	%	△0.5~0	N/A	△1.2	1.7
		2021년 3월	%	0.5	4.5	1.7	1.4
		2021년 4월	%	2.1	4.5	4.7	1.4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0년(연간)	%	△14.3	N/A	1.4	△5.0
		2021년 3월	%	N/A	N/A	N/A	△0.2
		2021년 4월	%	N/A	N/A	N/A	△0.7(누계)
고용	실업률	2020년(연간)	%	3.7	10.4	4.5	7.1
		2021년 3월	%	2.9	7.1	4.7	6.26(2월)
		2021년 4월	%	N/A	N/A	N/A	N/A
무역	수출증가율	2020년(연간)	%	△3.2	△10.1	△1.4	△2.2
		2021년 3월	%	21.0	31.6	31.0	30.5
		2021년 4월	%	26.6	N/A	N/A	51.9
	수입증가율	2020년(연간)	%	△7.4	△23.3	△6.3	△16.9
		2021년 3월	%	17.9	16.6	19.2	25.7
		2021년 4월	%	25.9	N/A	N/A	29.3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6. 정부의 통상정책은 기업의 창과 방패







2021 신남방 3국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인도) 비즈니스 현장점검 웨비나

해외출장이 어려운 시기, 신남방 현지에서 전하는 최신 경제·산업 동향 및 대응 전략!

2021.6.2(수)~4(금) 15시~16시 20분 | 온라인 개최 (YouTube 'kotra 비즈니스' 채널)
(한국시간)

프로그램

베트남 | 6.2(수)

시간(한국기준)	내용	비고
15:00~15:05	개회사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15:05~15:25	베트남 경제동향 및 진출전략	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15:25~15:45	베트남 주요 통상 이슈 및 대응방안	김태윤 관세사
15:45~16:05	베트남 IT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조규하 아이커머 법인장
16:05~16:20	우리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사항(FAQ) 답변	박민준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센터 운영팀장

인도네시아 | 6.3(목)

시간(한국기준)	내용	비고
15:00~15:05	개회사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15:05~15:25	인도네시아 경제동향 및 진출전략	이종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장
15:25~15:45	인도네시아 주요 통상 이슈 및 대응방안	이성권 PT. FCL 사장
15:45~16:05	인도네시아 IT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홍승수 PT. KTI 대표
16:05~16:20	우리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사항(FAQ) 답변	복덕규 KOTRA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 운영팀장

인도 | 6.4(금)

시간(한국기준)	내용	비고
15:00~15:05	개회사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15:05~15:25	인도 경제동향 및 진출전략	김문영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
15:25~15:45	인도 주요 통상 이슈 및 대응방안	윤소연 관세사
15:45~16:05	인도 스마트시티, 에듀테크, 디지털헬스 산업동향 및 진출방안	Meghna Jain KOTRA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Specialist
16:05~16:20	우리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사항(FAQ) 답변	이인규 KOTRA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운영팀장

참가방법

① 참가신청 링크 클릭하여 신청 ⇒ [참가신청 바로가기](#)

② 신청 이메일로 제공되는 웹주소로 웨비나 당일 접속

문의처

KOTRA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

02-3460-3479, nsbd@kotra.or.kr

화면 클릭 시 참가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021년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웨비나 개최 안내

행사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21년 6월 3일(목) 13:50 ~ 17:10	Zoom 온라인 플랫폼 활용
개최목적	진출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법률, 세무, 노무 정보제공	
주최/주관	KOTRA, 코참 베트남 공동주최	
주요내용	①베트남 투자법 개정 에 따른 시행령 공표, 세부내용 안내 ②베트남 노동법 및 각종 시행규칙 변화 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③2021년 개정세법 및 한-베 조세조약 개정 ④2021년 베트남 정부의 FDI 유치현황 및 대 외국인기업 정책변화 ⑤유턴 및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사업 홍보	

주요 프로그램

시간	내용	연사
13:50 – 14:00	개회사 및 환영사	이종섭 지역본부장 김한용 코참베트남 회장 Mr. Do Nhat Hoang FIA 청장
14:00 – 14:30	베트남 외국투자 유치현황 및 대 외국인기업 정책변화	베트남 투자청 청장
14:30 – 15:20	베트남 노동법 관련 시행규칙 변화 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	이재국 고용노동관 (대사관)
15:20 – 15:30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동영상 시청
15:30 – 16:10	베트남 개정 투자법 시행령 안내 및 최근 한국기업 경영 이슈	전현우 변호사 (법무법인 JP)
16:10 – 16:50	2021년 개정세법 및 한-베 조세조약 개정	조성룡 회계사 (서우회계법인, 코트라 고문 회계사)
16:50 – 17:10	Q&A	-

참가신청

온라인 참가신청 : <https://forms.gle/CuVXfVLPwZxM6RPz7>

문의처	이메일	전화번호
KOTRA 하노이	kimkdon@kotra.or.kr	024-3946-0511 (ext.164)
코참 베트남	info3@korchamvietnam.com	024-3555-3341



□ 베트남 PPP(민관협력사업) 시행령 국문번역본

○ KOTRA 하노이무역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하여 최근 3월말에 공표된 베트남 PPP 관련 시행령 2건을 국문번역 하였습니다. 이에 국문번역본은 안내 드리오니 PPP 관심기업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KOTRA 하노이무역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8/2021/NĐ-CP : PPP 프로젝트의 재무관리구조 시행령 ('21.3.26. 공표)

[☞ \(링크\)](#)

- 35/2021/NĐ-CP : PPP법 세부조항 및 안내 시행령 ('21.3.29. 공표)

[☞ \(링크\)](#)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